

#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

(2025.12.31. 현재)

## 분석 보고서

2026. 4. 22.

**CBCK**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 목 차

## 기초 분석 보고서

1. 신자 현황 .....	2
1) 인구 대비 신자 현황 .....	2
(1) 총인구 대비 신자 수 .....	2
(2)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 .....	4
2) 신자 구성 .....	5
(1) 연령별/성별 신자 구성 .....	5
(2) 교구별 신자 규모 .....	12
2. 본당과 공소 현황 .....	15
3. 성직자와 신학생 현황 .....	18
1) 성직자 수와 교구 소속 신부 수 .....	18
2) 신학생 수 .....	25
4. 수도회 및 수도자 현황 .....	28
1) 수도회 및 수도자 수 .....	28
(1) 남자 수도회 .....	30
(2) 여자 수도회 .....	32
2) 사도직 활동 현황 .....	35
5. 성사 활동 .....	36
1) 세례성사 .....	36

(1) 총 영세자 수 .....	36
(2) 연령별, 성별 영세자 수 .....	39
(3) 교구별 영세자 수 .....	42
2) 주일 미사와 판공성사 .....	45
3) 혼인성사 .....	48
4) 그 외 성사 .....	50
6. 주일 학교 .....	52
7. 신앙 교육 .....	55
8. 사회 사업 .....	56
9. 해외 파견 .....	57

## 사목적 시사점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에 나타난 사목적 시사점 .....	60
--------------------------------------	----

# 기초 분석 보고서

# 1. 신자 현황

## 1) 인구 대비 신자 현황

### (1) 총인구 대비 신자 수

- ▶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6,006,832명으로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음
- ▶ 전년 대비 0.2%(9,178명) 증가하였으나, 신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p 하락
- ▶ 군종교구를 제외하면, 신자 수가 전년 대비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1.4%로 전년대 동일

-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6,006,832명으로 2024년보다 0.2%(9,178명) 증가하여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총인구 52,722,298명<sup>1)</sup>의 11.4%로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2024년과 동일하다. 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확인하면, 2024년(11.38%) 대비 0.01%p 증가한 11.39%이다.
- 총인구는 52,722,298명으로 2024년보다 0.03%(16,72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sup>2)</sup>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출생아 급감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0-2023년 인구 증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등록외국인인구의 증가<sup>3)</sup>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신자 증가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0.1%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소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5년 신자 증가율은 0.2%로 전년(0.5%) 대비 0.3%p 하락하여 2023-2024년에 나타났던 회복 흐름이 둔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군종교구를 제외하면, 신자 수가 전년 대비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종교구를 제외한 신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1) 총인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51,117,378명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등록외국인인구 1,604,920명을 합산한 것이다.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3) 법무부가 제공하는 등록외국인인구를 살펴보면, 2020년은 2019년 대비 9.9%(126,267명)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3.4%(159,041명)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등록외국인인구는 2024년에 10.4%(139,272명), 2025년에는 7.8%(116,567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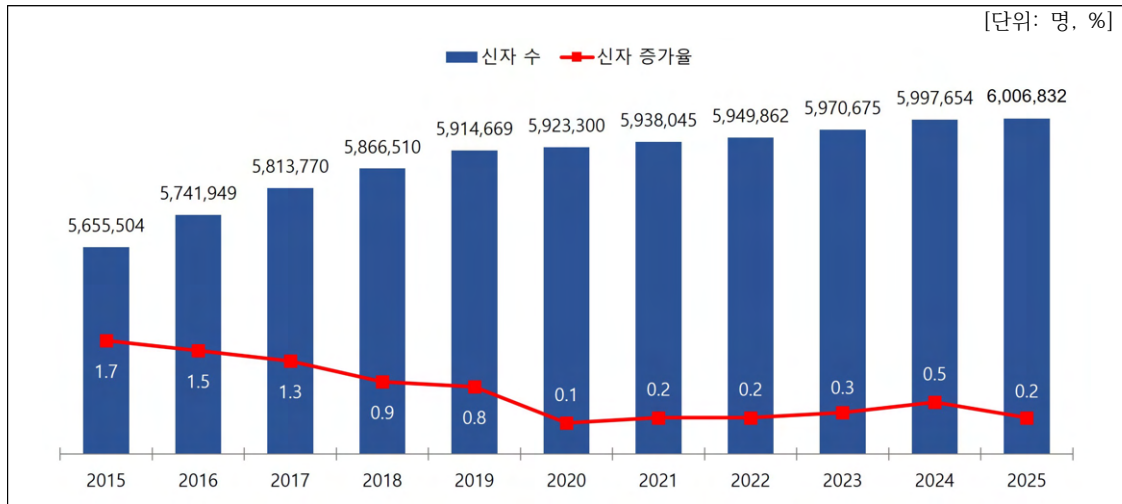
[표 1] 총인구 대비 신자 수(2015-2025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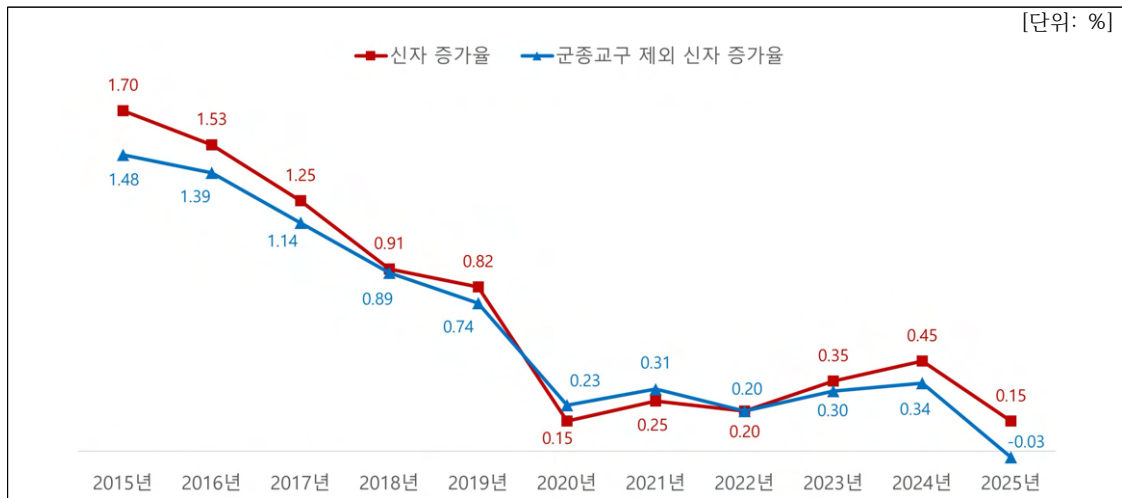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인구	52,672,425	52,857,893	52,950,306	53,072,685	53,121,668	52,974,563
신자 수	5,655,504	5,741,949	5,813,770	5,866,510	5,914,669	5,923,300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	10.7	10.9	11.0	11.1	11.1	11.2
신자 증가율	1.7	1.5	1.3	0.9	0.8	0.1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인구	52,732,700	52,628,623	52,673,955	52,705,574	52,722,298
신자 수	5,938,045	5,949,862	5,970,675	5,997,654	6,006,832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	11.3	11.3	11.3	11.4	11.4
신자 증가율	0.2	0.2	0.3	0.5	0.2



[그림 1] 신자 수 및 증가율(2015-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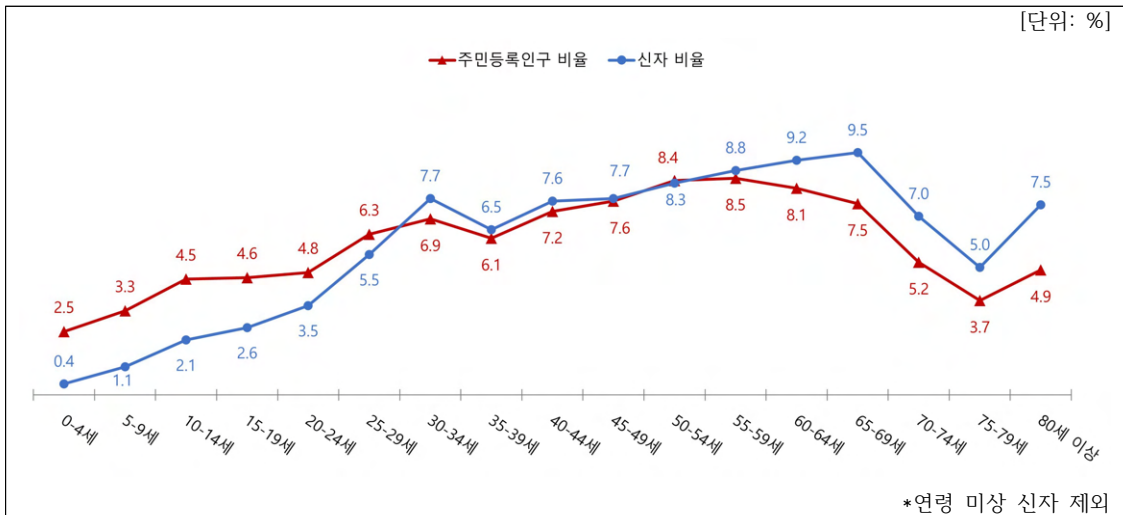


[그림 2] 균종교구 제외 신자 증가율(2015-2025년)

## (2)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

- ▶ 29세 이하의 모든 연령 구간에서 신자 비율이 주민등록인구 비율보다 낮음
- ▶ 55세 이상의 모든 연령 구간에서 신자 비율이 주민등록인구 비율보다 높음
- ▶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55-59세에서, 신자 비율은 65-6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별 구성 비율과 신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비교한 결과, 29세까지는 주민등록인구의 점유율이 앞서고 있으며 비율의 차는 0세에서 29세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30세에서 34세는 신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세부터 54세까지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55세 이후부터는 신자 비율이 더 앞서게 된다.
- 주민등록인구 비율에서는 55-59세가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자 비율에서는 65-69세가 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2024년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연령 구간(주민등록인구 50-54세, 신자 60-64세)보다 한 구간씩 상승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 내 인구 구조 역시 사회 전반의 고령화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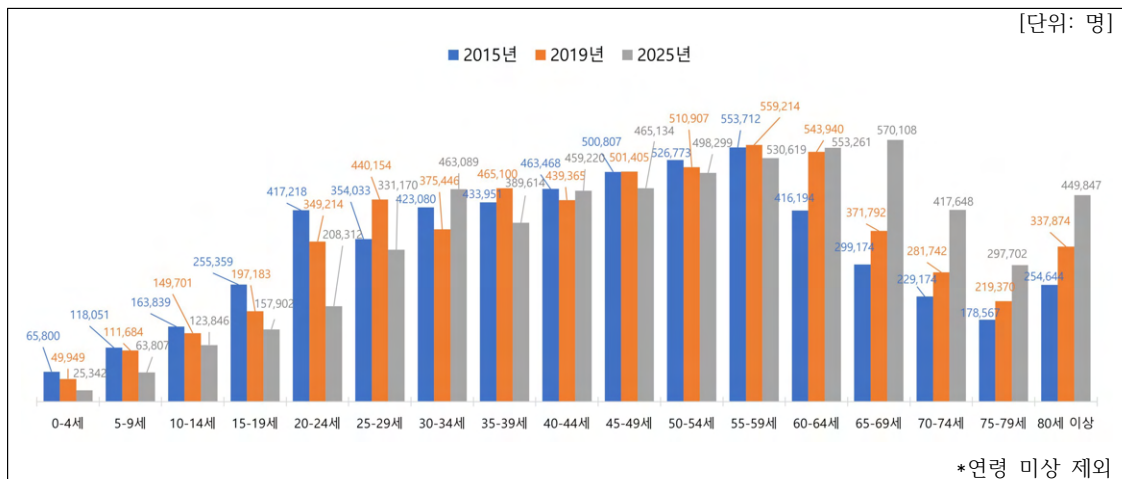


[그림 3] 주민등록인구와 신자 연령별 구성비

## 2) 신자 구성

### (1) 연령별/성별 신자 구성

- ▶ 24세 이하 신자 수는 감소, 60세 이상 신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
- ▶ 국가데이터처의 고령 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21.2%)보다 65세 이상 신자 비율(28.9%)이 더 높게 나타남.
- ▶ 교구별 65세 이상 신자의 비율은 안동(36.3%), 춘천(34.9%), 원주(33.0%), 부산(32.7%) 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남성과 여성 신자의 비는 43.2% 대 56.8%



[그림 4] 연령별 신자 수(2015년, 2019년, 2025년)

- 10년 전인 2015년과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2025년의 연령별 신자 수를 비교해 보았다.
- 2025년 0-4세 신자 수는 25,342명으로 2015년보다 61.5%(40,458명), 2019년보다 49.3%(24,607명)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면, 65-69세 신자 수는 570,108명으로 2015년보다 90.6%(270,934명), 2019년보다 53.3%(198,316명)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 밖에도 2015년, 2019년, 2025년 연령별 신자 수를 비교했을 때 24세 이하 신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신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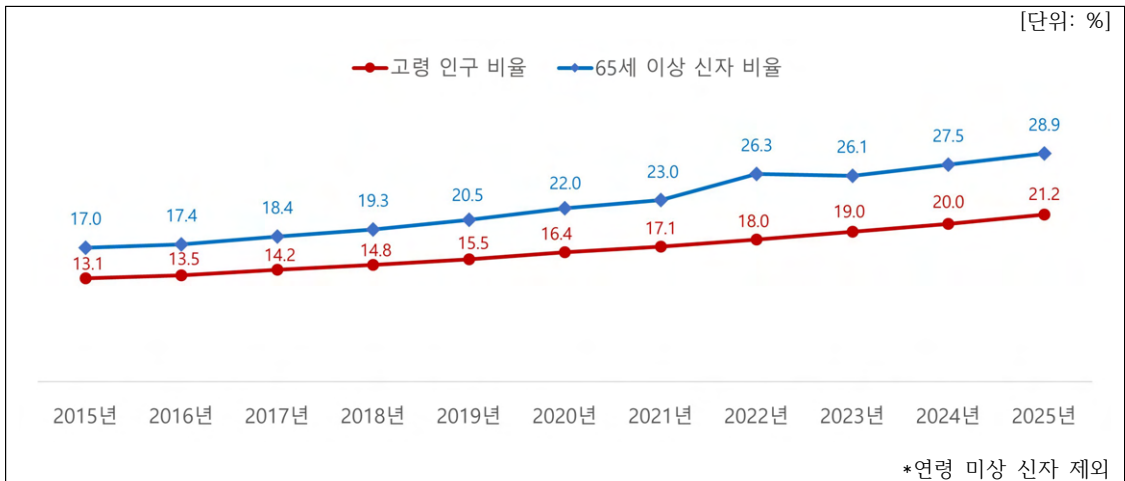
[표 2] 연령별 신자 수(2015년, 2019년, 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5년 신자 수	2019년(A) 신자 수	2025년(B) 신자 수	증감(B-A)	
				신자 수	증감률
0-4세	65,800	49,949	25,342	-24,607	-49.3
5-9세	118,051	111,684	63,807	-47,877	-42.9
10-14세	163,839	149,701	123,846	-25,855	-17.3
15-19세	255,359	197,183	157,902	-39,281	-19.9
20-24세	417,218	349,214	208,312	-140,902	-40.3
25-29세	354,033	440,154	331,170	-108,984	-24.8
30-34세	423,080	375,446	463,089	87,643	23.3
35-39세	433,951	465,100	389,614	-75,486	-16.2
40-44세	463,468	439,365	459,220	19,855	4.5
45-49세	500,807	501,405	465,134	-36,271	-7.2
50-54세	526,773	510,907	498,299	-12,608	-2.5
55-59세	553,712	559,214	530,619	-28,595	-5.1
60-64세	416,194	543,940	553,261	9,321	1.7
65-69세	299,174	371,792	570,108	198,316	53.3
70-74세	229,299	281,742	417,648	135,906	48.2
75-79세	178,567	219,370	297,702	78,332	35.7
80세 이상	254,644	337,874	449,847	111,973	33.1
합계	5,653,969	5,904,040	6,004,920	100,880	1.7

※ 연령 미상 제외

-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대비 전체 신자 수는 1.7%(100,880명) 증가하였다. 2019년 대비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연령대는 4세 이하 신자로 49.3%(-24,607명)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5-9세에서 -42.9%(-47,877명), 20-24세에서 -40.3%(-140,902명)를 나타냈다.
- 65세 이상 신자 수는 2015년 대비 80.4%(773,621명), 2019년 대비 43.3%(524,5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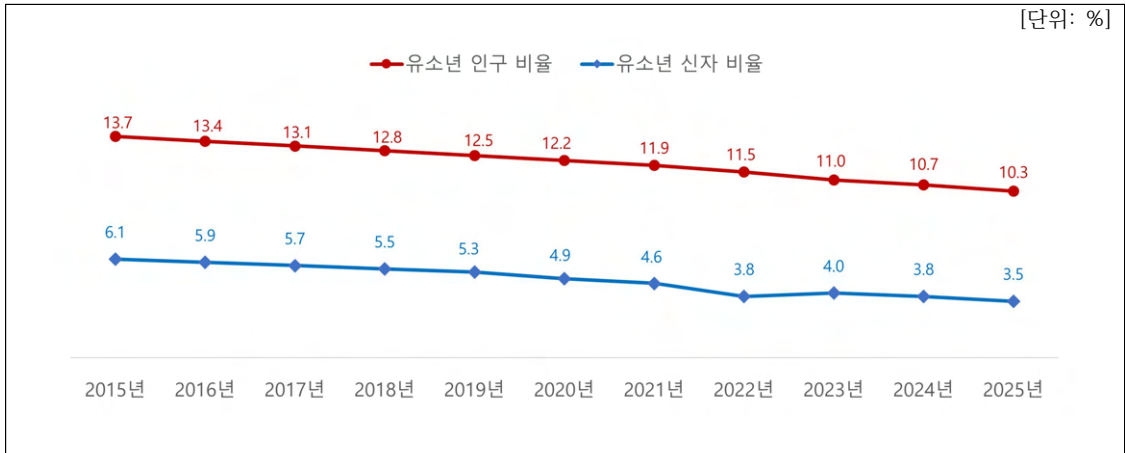
[그림 5] 고령 인구, 65세 이상 신자 비율(2015-2025년)

- 지난 10년 동안 고령 인구 비율<sup>4)</sup>과 65세 이상 신자 비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신자 비율 역시 2023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또한 고령 인구 비율(21.2%)보다 65세 이상 신자 비율(28.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이 정한 기준<sup>5)</sup>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4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한국 천주교회 65세 신자 비율은 그보다 앞선 2019년에 20.5%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28.9%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한국 천주교회가 단순한 고령화 단계를 넘어 고령 신자 중심의 교회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5 참조).
- 지난 10년 동안 주민등록 유소년 인구<sup>6)</sup> 비율, 유소년 신자 비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과 유소년 신자 비율 모두 지난 10년 동안 감소세를 보인다.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고령 인구 비율 대비 평균 6.5%p 높게 나타나지만, 유소년 신자 비율은 유소년 인구 비율 대비 평균 7.3%p 낮게 나타난다(그림 6 참조).

4)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낸다.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됨.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대한 현황이며,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센서스에 의한 통계와는 조사 방법이 다르다(연말 기준,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외국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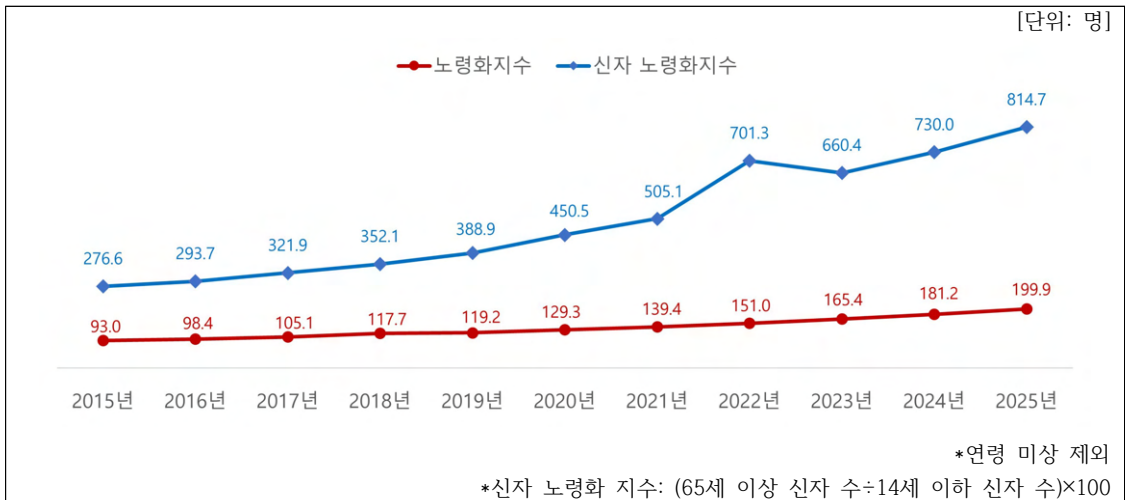
5)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Population Divisio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사회를 세 단계로 분류한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7% 이상, 고령 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는 20% 이상일 때를 지칭한다.

6) 유소년(0-14세) 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를 합산한 것이다.



[그림 6] 주민등록 유소년(0-14세) 인구, 유소년 신자 비율(2015-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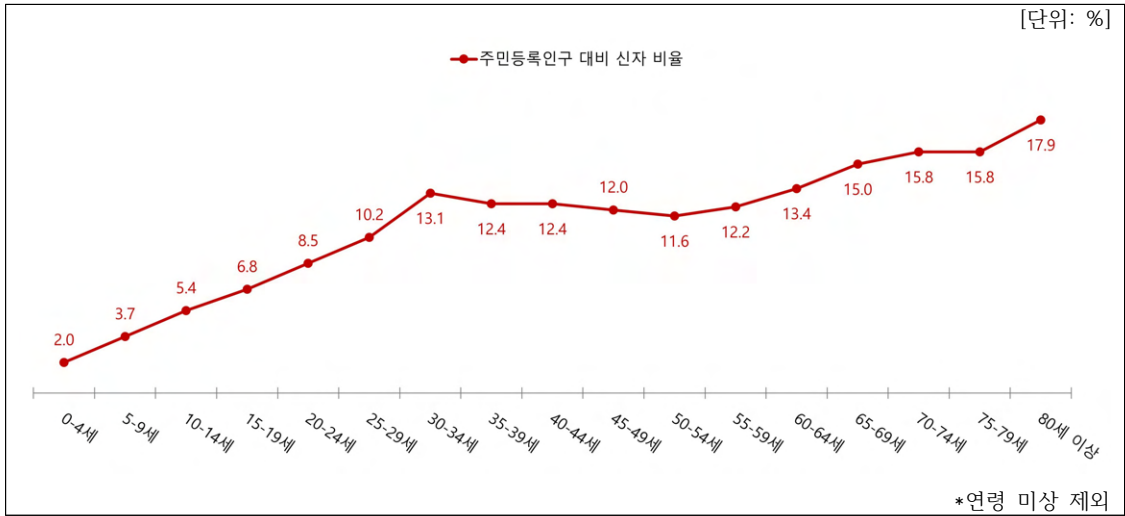
-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sup>7)</sup>를 살펴보면, 한국의 노령화 지수와 한국 천주교회 신자 노령화 지수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신자 노령화 지수가 한국의 수치(199.9명)보다 더 높은 수치(814.7명)를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노령화 지수, 신자 노령화 지수(2015-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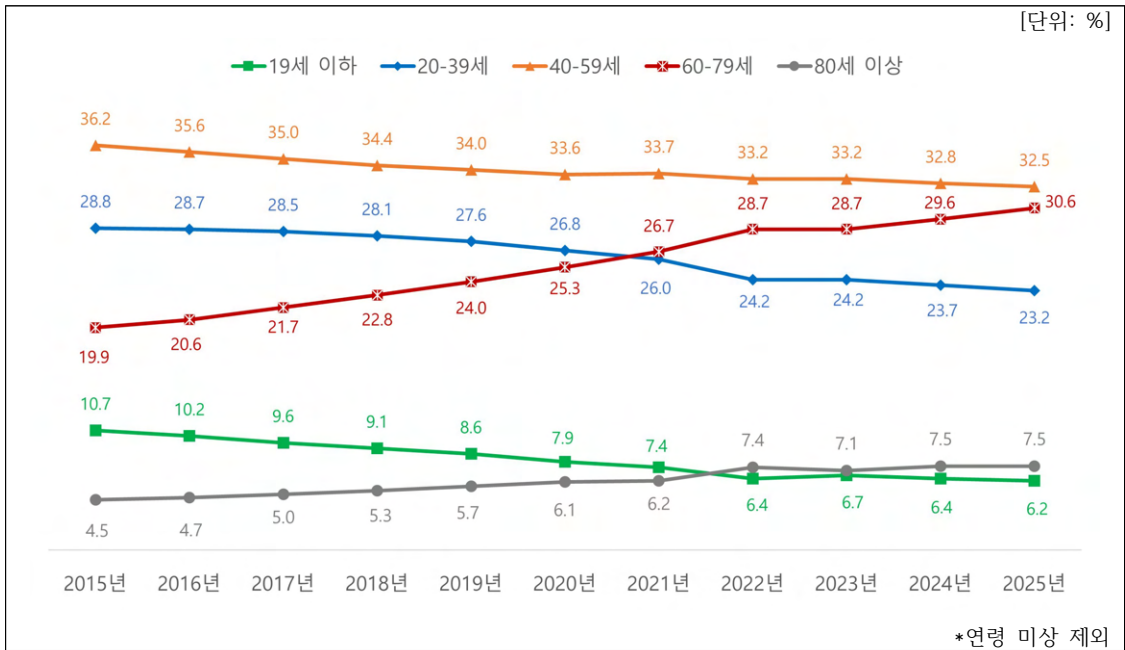
-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을 살펴보면 29세 이하까지는 총인구 대비 인구 신자 비율인 11.4%(표 1 참조) 이하였다가 30세 이후에는 이를 상회하기 시작한다(그림 8 참조).

7)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다. 한국의 노령화 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20.0명, 2000년 34.3명, 2010년 67.2명에 이어 2025년에는 199.9명에 달하였다. 국가데이터처, 「장애인구추계」 참조. 노령화 지수={고령 인구(65세 이상) ÷ 유소년 인구(0-14세)}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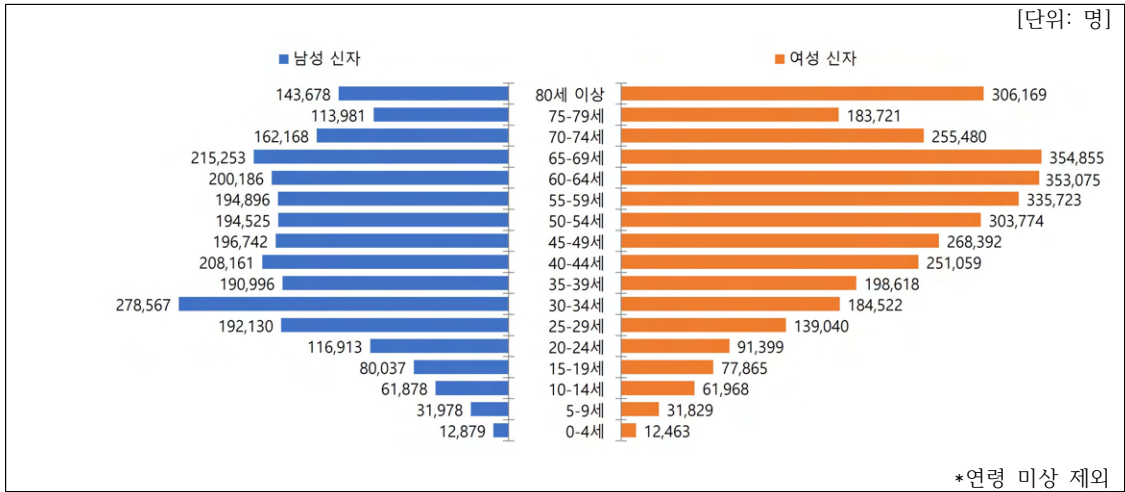


[그림 8]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신자 비율

□ 연령별 신자 비율을 20세 구간으로 나누어 지난 10년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40-59세 신자가 전체 연령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39세, 19세 이하 신자 비율 역시 지난 10년 동안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60-79세 신자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30.6%를 나타냈으며, 80세 이상 신자 비율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그림 9 참조).



[그림 9] 연령별(20세 구간별) 신자 비율(2015-2025년)



[그림 10] 연령별 남녀 신자 수

- 2025년 신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595,691명(43.2%), 여성이 3,411,141명(56.8%)으로 지난해(2024년 남성 43.0% 대 여성 57.0%)와 비교하여 남성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 19세 이하에서는 남녀 신자의 비율이 거의 대등하게 이어지다가 20-34세에는 남성 신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5세부터 여성 신자의 비율이 남성 신자 비율보다 많아지고 비율의 차도 점점 더 증가하다가 65-69세부터 다시 비율의 차가 줄어들는다. 한편, 80세 이상에서는 남성 31.9% 대 여성 68.1%로 남녀 신자의 비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3] 연령별 남녀 신자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신자	남성		여성	
		신자 수	비율	신자 수	비율
0-4세	25,342	12,879	50.8	12,463	49.2
5-9세	63,807	31,978	50.1	31,829	49.9
10-14세	123,846	61,878	50.0	61,968	50.0
15-19세	157,902	80,037	50.7	77,865	49.3
20-24세	208,312	116,913	56.1	91,399	43.9
25-29세	331,170	192,130	58.0	139,040	42.0
30-34세	463,089	278,567	60.2	184,522	39.8
35-39세	389,614	190,996	49.0	198,618	51.0
40-44세	459,220	208,161	45.3	251,059	54.7
45-49세	465,134	196,742	42.3	268,392	57.7
50-54세	498,299	194,525	39.0	303,774	61.0

55-59세	530,619	194,896	36.7	335,723	63.3
60-64세	553,261	200,186	36.2	353,075	63.8
65-69세	570,108	215,253	37.8	354,855	62.2
70-74세	417,648	162,168	38.8	255,480	61.2
75-79세	297,702	113,981	38.3	183,721	61.7
80세 이상	449,847	143,678	31.9	306,169	68.1
연령 미상	1,912	723	37.8	1,189	62.2
합계	6,006,832	2,595,691	43.2	3,411,141	56.8

- 교구별 65세 이상 신자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군종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의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부터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교구에서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교구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모든 교구에서 비율이 증가하여 총 1.0%p 증가한 28.9%로 나타났다(군종교구 제외). 교구별로 살펴보면 안동(36.3%), 춘천(34.9%), 원주(33.0%), 부산(32.7%) 교구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교구별 65세 이상 신자 비율(교구별 65세 이상 신자/교구별 전체 신자\*100)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8.3	18.5	19.6	20.6	22.0	23.7	23.9	27.4	27.0	28.4	29.9
춘천	21.4	21.7	23.0	24.0	25.4	26.9	28.4	32.0	31.9	33.2	34.9
대전	16.7	17.0	18.0	18.7	19.7	21.0	22.2	25.1	24.8	26.1	27.3
인천	15.9	16.4	17.4	18.3	19.5	20.9	22.3	25.8	25.6	27.1	28.7
수원	14.7	15.1	16.0	16.8	17.8	19.1	20.3	23.3	23.1	24.5	25.8
원주	19.4	19.7	21.0	22.0	23.1	24.6	26.0	29.8	29.4	31.1	33.0
의정부	16.2	16.5	17.3	18.1	19.1	20.4	21.6	24.6	24.5	25.8	27.1
대구	17.8	18.4	19.5	20.6	21.7	23.3	24.7	28.1	27.8	29.5	30.2
부산	17.0	17.8	19.1	20.4	21.8	23.6	25.4	29.3	29.1	30.9	32.7
청주	17.3	17.8	18.7	19.6	20.7	22.0	23.2	25.6	26.4	27.7	29.3
마산	15.6	16.3	17.5	18.6	20.0	21.8	23.4	27.2	27.3	28.9	30.8
안동	22.6	23.1	24.3	25.5	26.9	28.4	29.9	33.6	33.4	35.0	36.3
광주	18.5	19.0	20.1	21.0	22.1	23.5	24.9	28.2	28.1	29.7	31.1
전주	19.2	19.8	20.7	21.6	22.7	24.1	25.3	28.1	28.2	29.7	31.5
제주	15.2	15.9	16.8	17.6	18.6	20.0	21.3	24.4	24.1	25.0	26.5
합계	17.0	17.4	18.4	19.3	20.5	22.0	23.0	26.3	26.1	27.5	28.9

※ 군종교구 제외

## (2) 교구별 신자 규모

- ▶ 교구별 신자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서울, 수원, 인천, 대구, 부산 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수도권 교구 신자가 전체 신자의 55.9%를 차지함
- ▶ 교구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교구는 서울대교구(16.4%), 가장 낮은 교구는 마산교구(7.9%)로 나타남
- ▶ 2015년 대비 교구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서울대교구 1.4%p 증가, 수원교구는 0.3%p 감소함
- ▶ 수도권 교구에서 신자 전입과 전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5년 교구별 신자 비율은 서울대교구 신자 수가 한국 천주교회 전체 신자의 25.4%를 차지하고, 수원 16.1%, 인천 8.8%, 대구 8.5%, 부산 7.7% 등으로 2024년도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교구(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는 3,355,799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자 수의 55.9%를 차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2015년 대비 신자 수 증가율은 군종교구를 제외하면 제주교구 15.0%, 의정부교구 14.7%, 대전교구 14.2%, 수원교구 13.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대교구 2.4%, 부산교구와 광주대교구 각 4.1%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5] 2024년도 대비 교구별 신자 수

[단위: 명, %]

구분	2024		2025		증감 (B-A)	증감률
	신자 수(A)	비율	신자 수(B)	비율		
서울	1,527,701	25.5	1,527,576	25.4	-125	0.0
춘천	93,179	1.6	93,383	1.6	204	0.2
대전	345,037	5.8	346,337	5.8	1,300	0.4
인천	529,570	8.8	530,135	8.8	565	0.1
수원	962,147	16.0	965,805	16.1	3,658	0.4
원주	81,096	1.4	81,583	1.4	487	0.6
의정부	330,568	5.5	332,283	5.5	1,715	0.5
대구	515,814	8.6	508,151	8.5	-7,663	-1.5
부산	460,947	7.7	460,487	7.7	-460	-0.1
청주	172,862	2.9	172,464	2.9	-398	-0.2
마산	183,025	3.1	182,824	3.0	-201	-0.1

안동	52,648	0.9	52,487	0.9	-161	-0.3
광주	367,600	6.1	366,051	6.1	-1,549	-0.4
전주	202,338	3.4	202,730	3.4	392	0.2
제주	84,359	1.4	84,777	1.4	418	0.5
군중	88,763	1.5	99,759	1.7	10,996	12.4
합계	5,997,654	100.0	6,006,832	100.0	9,178	0.2

- 지난 10년의 교구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6 참조).
- 2025년 교구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서울대교구가 16.4%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교구(12.8%), 인천과 청주 교구(11.9%), 대구와 전주 교구(11.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산교구는 7.9%로 가장 낮았고, 안동교구(8.0%), 춘천교구(8.4%), 부산교구(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난 10년간 교구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대교구는 2015년 대비 1.4%p 증가하였고, 수원교구는 0.3%p 감소하여 유일하게 신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교구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

[단위: %, %p]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	B-A
서울	15.0	15.3	15.0	15.6	15.2	15.4	15.7	15.8	16.3	16.3	16.4	1.4
춘천	7.8	7.8	7.9	8.0	8.2	8.3	8.4	8.5	8.4	8.2	8.4	0.6
대전	8.2	8.3	8.4	8.4	8.5	8.5	8.6	8.6	8.7	8.7	8.7	0.6
인천	11.4	11.6	11.6	11.7	11.9	11.9	11.9	11.9	11.9	10.8	11.9	0.5
수원	11.0	10.9	10.7	10.7	10.9	10.9	10.9	11.0	10.9	10.9	10.7	-0.3
원주	9.0	8.8	9.0	8.7	9.0	9.0	8.2	9.2	9.2	9.3	9.2	0.2
의정부	9.7	9.6	9.7	10.1	10.3	9.7	9.7	9.7	9.7	9.6	9.8	0.1
대구	10.9	11.0	11.1	11.3	11.4	11.5	11.7	11.8	11.8	11.9	11.8	0.9
부산	7.9	8.0	8.1	8.2	8.3	8.3	8.4	8.5	8.4	8.6	8.6	0.7
청주	11.6	11.7	11.8	11.9	12.0	11.7	11.7	11.6	11.6	11.6	11.9	0.3
마산	6.8	6.9	7.3	7.2	7.2	7.2	7.6	7.6	7.7	7.6	7.9	1.1
안동	6.9	7.0	7.2	7.3	7.4	7.5	7.6	7.6	7.7	8.0	8.0	1.1
광주	10.4	10.5	11.0	10.7	10.8	10.9	11.2	11.3	11.4	11.5	11.5	1.2
전주	10.4	10.6	10.7	10.9	11.1	11.2	11.3	11.4	11.5	11.6	11.8	1.3
제주	11.8	11.7	11.6	11.6	12.1	12.2	13.5	12.9	12.2	12.6	12.8	1.0

※ 군중교구 제외

- 2025년 한국 교회 전체 신자의 0.8%가 타교구에서 전입, 0.9%가 타교구로 전출하였다(전입 49,240명, 전출 53,940명).
- 타교구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전입해 온 교구는 수원교구로 전체 전입 신자의 23.9%이다. 다음으로는 서울대교구 23.8%, 의정부교구 11.1%, 인천교구 10.3%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구로 전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교구 전입 비율은 2024년 대비 0.1%p 증가한 69.1%이다.  
타교구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교구는 서울대교구가 36.0%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수원교구 15.8%, 인천교구 7.7%, 의정부교구 5.7% 순으로 나타났다(군종교구 제외). 수도권 지역에서 타교구로의 전출 비율은 2024년 대비 1.3%p 감소한 65.2%로 전출 역시 수도권 교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교구 신자 수 대비 타교구에서 전입한 신자의 비율은 의정부교구가 1.6%로 가장 높으며 춘천교구와 수원교구 각 1.2%, 원주교구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교구로 전출한 신자의 비율은 군종교구를 제외하면 서울대교구 1.3%, 춘천교구 1.1%, 수원교구와 원주교구, 의정부교구 각 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2025년 교구별 전입과 전출

[단위: 명, %]

구분	타교구에서의 전입			타교구로의 전출		
	전입 신자 수	교구별 전입 비율	교구 신자 대비 전입률	전출 신자 수	교구별 전출 비율	교구 신자 대비 전출률
서울	11,709	23.8	0.8	19,408	36.0	1.3
춘천	1,158	2.4	1.2	990	1.8	1.1
대전	3,243	6.6	0.9	2,514	4.7	0.7
인천	5,054	10.3	1.0	4,158	7.7	0.8
수원	11,781	23.9	1.2	8,496	15.8	0.9
원주	922	1.9	1.1	718	1.3	0.9
의정부	5,463	11.1	1.6	3,083	5.7	0.9
대구	2,003	4.1	0.4	2,062	3.8	0.4
부산	1,869	3.8	0.4	2,186	4.1	0.5
청주	1,341	2.7	0.8	1,161	2.2	0.7
마산	903	1.8	0.5	1,212	2.2	0.7
안동	447	0.9	0.9	379	0.7	0.7
광주	1,376	2.8	0.4	1,723	3.2	0.5
전주	857	1.7	0.4	992	1.8	0.5
제주	702	1.4	0.8	669	1.2	0.8
군종	412	0.8	0.4	4,189	7.8	4.2
합계	49,240	100.0	0.8	53,940	100.0	0.9

## 2. 본당과 공소 현황

- ▶ 2025년 전국의 본당 수는 1,789개로 2024년도와 동일함
- ▶ 공소 수는 687개로 2024년도와 비교하여 15개 감소
- ▶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적은 교구는 안동교구로 서울대교구 본당 평균 신자 수의 19.5%임

- 전국의 본당 수는 1,789개로 3년째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과 안동 교구에서 각 1개 본당씩 증가하였으며, 군종교구에서 2개 본당이 감소하였다. 2015년 대비는 83개가 증가하였다.
- 공소 수는 전주교구 2개, 부산교구 1개가 증가하였으나 광주대교구에서 12개, 수원교구에서 2개, 춘천, 청주, 안동, 군종 교구에서 각 1개가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총 15개 공소가 감소하였다.
- 2015년 대비 본당 수 증가율은 제주교구 14.8%, 의정부교구 13.0%, 원주교구 12.5%, 인천교구 1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교구 1.1%, 춘천교구와 부산교구 각 1.6%, 서울대교구 1.7% 순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군종교구는 2015년 대비 본당 수가 유일하게 감소(-1.1%)하였다.

[표 8] 교구별 본당/공소 수(2020-2025년)

[단위: 개]

구분	본당 수								공소 수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대비 증감 수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대비 증감 수
서울	229	232	232	232	233	233	233	0	-	-	-	-	-	-	-	-
춘천	61	63	62	62	62	62	62	0	42	36	37	37	37	37	36	-1
대전	137	143	145	145	145	145	145	0	53	68	72	73	75	77	77	0
인천	122	129	130	130	134	134	135	1	36	33	32	29	28	28	28	0
수원	206	221	222	222	222	222	222	0	18	17	18	19	24	22	20	-2
원주	48	53	54	54	54	54	54	0	40	37	36	36	36	36	36	0
의정부	77	84	85	86	87	87	87	0	5	3	5	5	5	4	4	0
대구	160	164	164	164	164	164	164	0	79	77	77	77	77	77	77	0
부산	124	126	126	126	126	126	126	0	15	14	13	11	13	12	13	1
청주	76	79	82	82	82	82	82	0	56	49	46	46	46	47	46	-1
마산	73	73	74	75	75	75	75	0	52	52	51	49	49	46	46	0
안동	39	40	40	40	40	40	41	1	65	63	63	61	61	61	60	-1

광주	137	140	140	142	142	142	142	0	79	73	80	79	79	79	67	-12
전주	95	96	96	96	96	96	96	0	74	59	58	68	70	70	72	2
제주	27	28	31	31	31	31	31	0	8	9	7	7	6	6	6	0
군종	95	96	96	97	96	96	94	-2	139	114	115	111	102	100	99	-1
합계	1,706	1,767	1,779	1,784	1,789	1,789	1,789	0	761	704	710	708	708	702	687	-15
전년 대비 증감 수	24	11	12	5	5	0	0		-31	-5	6	-2	0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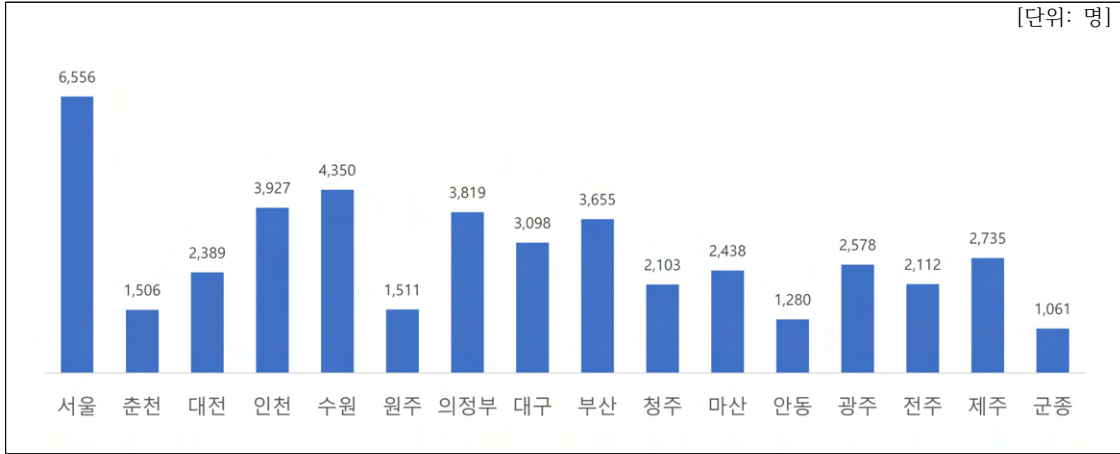
-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서울대교구가 6,556명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수원(4,350명), 인천(3,927명), 의정부(3,819명), 부산(3,655명) 교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개의 교구에서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
- 군종교구를 제외하고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적은 교구는 안동교구로 1,280명이며, 이는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대교구 6,556명의 19.5% 수준이다.
- 2015년 대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군종교구를 제외하고 춘천교구가 6.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전, 수원, 의정부, 대구, 부산, 마산, 전주, 군종 교구에서 본당 평균 신자 수가 증가하였다.
- 2015년 대비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교구는 원주교구(-3.8%)이며, 서울, 인천, 청주, 안동, 광주, 제주 교구에서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감소하였다.

[표 9] 2015-2025년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교구별 신자 수/본당 수)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6,576	6,643	6,586	6,594	6,590	6,612	6,616	6,610	6,568	6,557	6,556
춘천	1,420	1,445	1,466	1,458	1,472	1,456	1,487	1,491	1,499	1,503	1,506
대전	2,276	2,305	2,289	2,326	2,360	2,349	2,331	2,346	2,362	2,380	2,389
인천	4,069	4,132	4,120	4,072	4,076	4,049	4,029	4,039	3,934	3,952	3,927
수원	4,208	4,195	4,229	4,261	4,260	4,217	4,225	4,256	4,293	4,334	4,350
원주	1,570	1,528	1,489	1,480	1,498	1,503	1,484	1,489	1,498	1,502	1,511
의정부	3,811	3,864	3,898	3,822	3,897	3,786	3,777	3,762	3,759	3,800	3,819
대구	3,075	3,075	3,108	3,135	3,120	3,121	3,127	3,131	3,137	3,145	3,098
부산	3,609	3,641	3,668	3,661	3,651	3,648	3,650	3,647	3,651	3,658	3,655
청주	2,154	2,159	2,189	2,186	2,176	2,180	2,107	2,094	2,099	2,108	2,103
마산	2,401	2,428	2,492	2,513	2,496	2,492	2,461	2,431	2,435	2,440	2,438
안동	1,287	1,271	1,284	1,298	1,308	1,308	1,308	1,307	1,311	1,316	1,280
광주	2,598	2,627	2,649	2,635	2,631	2,611	2,616	2,579	2,584	2,589	2,578
전주	2,054	2,076	2,069	2,087	2,101	2,101	2,105	2,104	2,108	2,108	2,112

제주	2,799	2,868	2,923	2,868	2,908	2,932	2,678	2,695	2,711	2,721	2,735
군종	672	758	825	851	917	856	821	811	850	925	1,061
합계	3,315	3,340	3,353	3,358	3,368	3,352	3,338	3,335	3,337	3,353	3,358



[그림 11] 2025년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

### 3. 성직자와 신학생 현황

#### 1) 성직자 수와 교구 소속 신부 수

- ▶ 성직자 수는 총 5,797명[주교 39명(추기경 2명 포함), 신부 5,75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증가
- ▶ 2025년도에 사제품을 받은 교구 신부는 70명으로 2024년보다 2명 감소
- ▶ 교구 신부 중 40-50대 신부가 51.2%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신부 비율은 19.7%로 전년 대비 1.0%p 상승
- ▶ 원로 사목자 비율은 13.3%(636명)로 전년 대비 1.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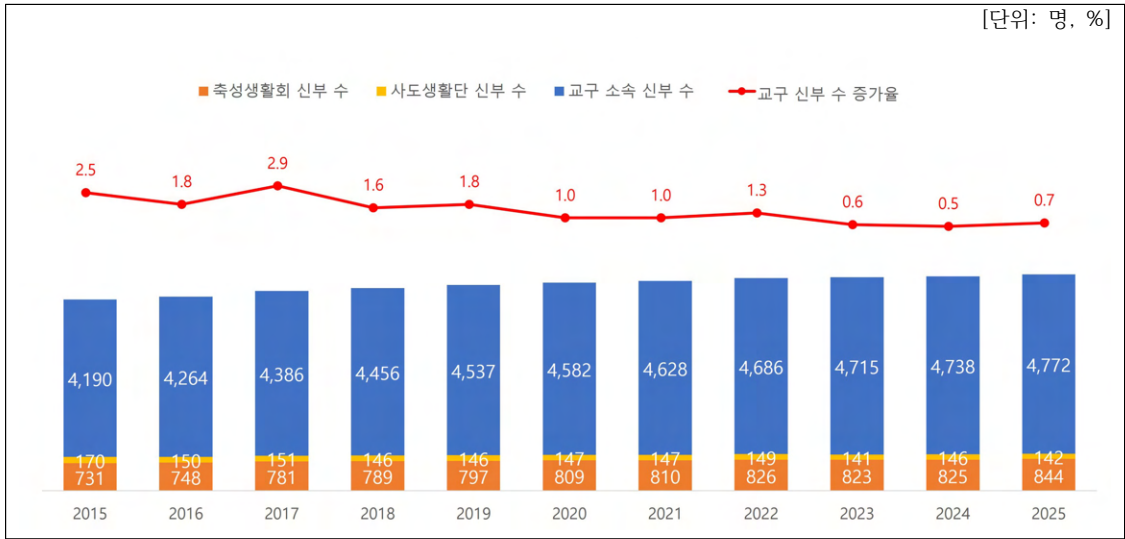
-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의 성직자(부제 제외)는 추기경 2명을 포함하여 주교 39명, 신부 5,758명으로 총 5,797명이다. 주교의 수는 지난해보다 3명 감소하였고 신부는 49명이 증가하였다.

[표 10] 성직자 수(2015-2025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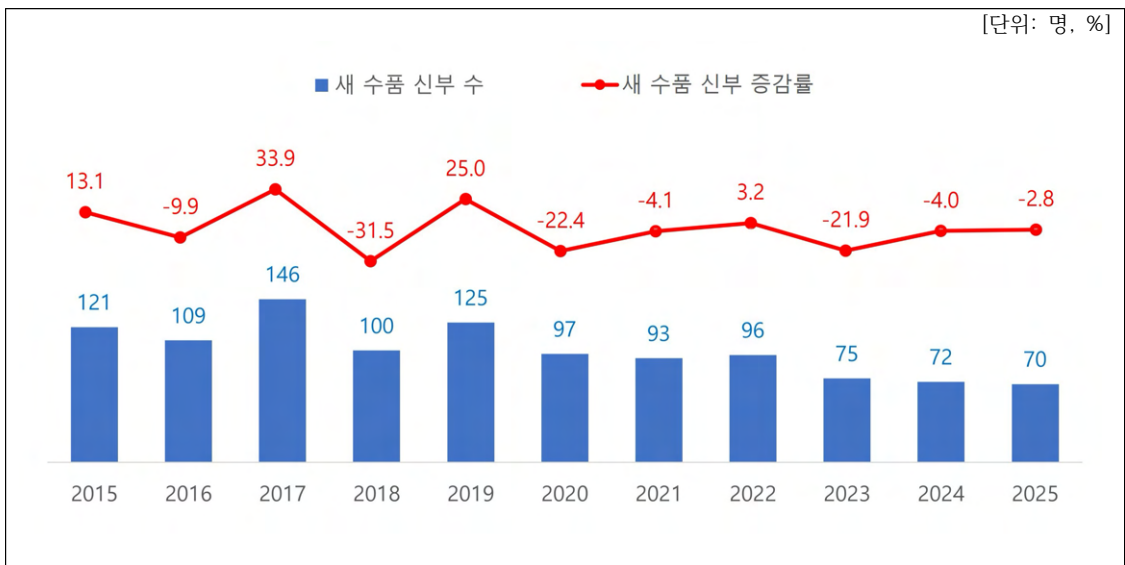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직자 수	5,129	5,201	5,360	5,430	5,522	5,578
주교	38	39	42	42	42	40
신부	5,091	5,162	5,318	5,388	5,480	5,53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성직자 수	5,626	5,703	5,721	5,751	5,797	
주교	41	42	42	42	39	
신부	5,585	5,661	5,679	5,709	5,758	

- 2025년 교구 신부의 수는 4,772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교구 소속 신부 수의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까지는 2%대의 증가율을 유지하며(2016년 제외) 2017년에는 2.9%까지 나타났으나 2018년 이후에는 1%대로 낮아졌고, 2023년부터는 1% 미만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연도별 신부 수 및 교구 소속 신부 증가율(2015-2025년)

- 2025년 교구 소속 새 수품 신부 수는 총 70명으로 2024년보다 2명이 감소하였다.
- 새 수품 신부 수는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까지는 100명 이상이였지만 2020년부터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5년 교구 소속 새 수품 신부 수는 2015년 대비 42.1% 감소하였다.
- 서울대교구에서 새 수품 신부의 40%에 해당하는 28명의 새 사제가 탄생하였으며, 수원(10명), 대구(7명), 대전(6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 새 수품 신부가 없는 교구는 4개 교구이다(춘천, 원주, 안동, 제주 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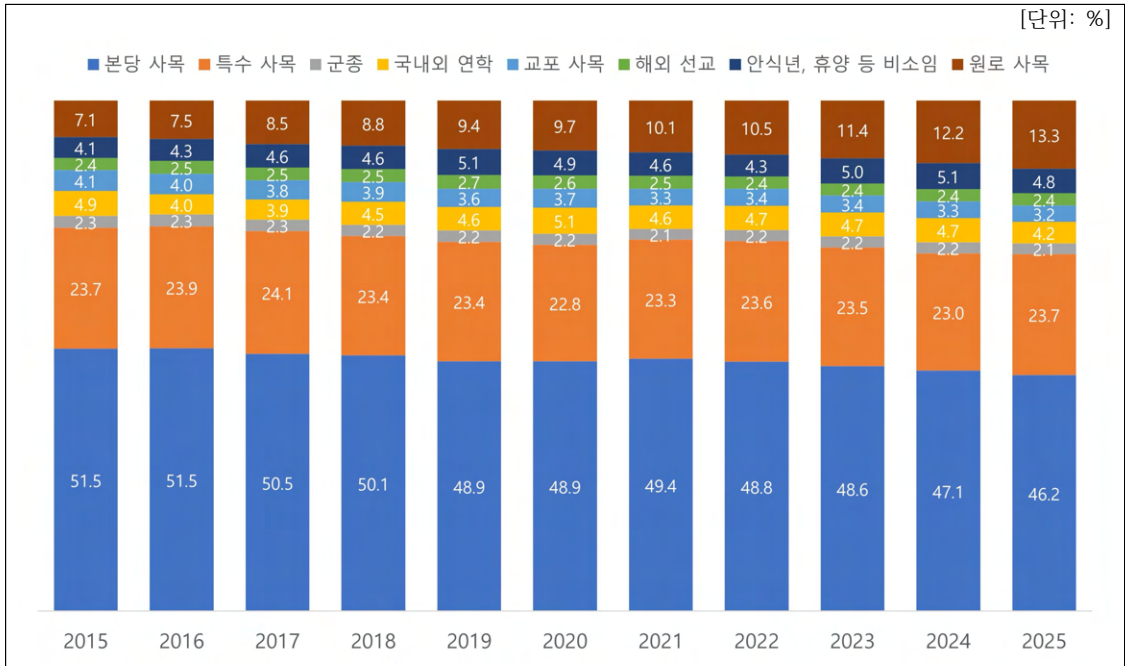
[그림 13] 교구 소속 새 수품 신부 수(2015-2025년)

[표 11] 교구별 새 수품 신부 수(2015-2025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대비 증감 수
서울	25	20	27	32	26	26	19	18	23	16	28	12
춘천	3	-	3	1	2	1	2	3	3	2	-	-2
대전	10	5	22	-	7	9	13	-	3	4	6	2
인천	7	12	18	11	9	8	7	8	7	1	2	1
수원	19	17	22	13	25	20	14	21	18	9	10	1
원주	2	6	2	4	3	1	-	2	1	4	-	-4
의정부	7	4	8	7	4	8	7	5	7	4	5	1
대구	17	13	15	7	31	5	12	8	1	6	7	1
부산	3	6	7	7	4	0	6	4	4	2	2	0
청주	6	3	7	4	3	2	2	5	2	4	1	-3
마산	5	7	3	3	-	4	2	6	3	1	2	1
안동	3	4	1	-	1	1	-	1	-	3	-	-3
광주	6	6	7	7	5	7	7	5	2	9	4	-5
전주	5	4	4	3	3	2	2	8	-	6	3	-3
제주	3	2	-	1	2	3	-	2	1	1	-	-1
합계	121	109	146	100	125	97	93	96	75	72	70	-2
증감률	13.1	-9.9	33.9	-31.5	25.0	-22.4	-4.1	3.2	-21.9	-4.0	-2.8	

- 2025년 현재 교구 신부 가운데 본당 사목을 소임으로 하는 신부 수는 2,205명으로 전체 신부의 46.2%에 해당한다. 이어서 특수 사목 23.7%(1,131명), 국내외 연합 4.2%(국내 연합 53명, 국외 연합 148명), 교포 사목 3.2%(152명), 해외 선교 2.4%(113명), 군종 2.1%(102명)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로 사목자는 전년 대비 1.1%p 증가한 13.3%(636명)로 나타났다.
- 교구 신부 소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당 사목자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2021년 제외), 2019년부터는 50% 이하로 낮아져 2025년에는 2015년보다 5.3%p 낮은 46.2%로 나타났다. 특수 사목자의 비율은 23.7%로 2015년과 동일하다. 교포 사목은 지난 10년 동안 소폭 증가하는 해도 있었으나 감소하는 추세이다. 해외 선교는 2019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난 4년 동안은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 안식년을 보내는 사목자의 비율은 2.2%로 2024년과 동일하며, 2015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 사제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원로 사목자의 비율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전체 교구 사제의 10%를 넘은 데 이어 2025년 원로 사목자의 비율은 13.3%(636명)로 2015년보다 6.2%p가 증가하여 교구 신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교구 신부 소임별 비율

[표 12] 교구 신부 소임별 비율(2015-2025년)

[단위: 명, %]

구분	본당 사목	특수 사목	군종	국내외 연학	교포 사목	해외 선교	안식년	휴양	대기	휴직	원로 사목	
2015	인원수	2,156	991	98	204	171	99	63	48	36	26	298
	비율	51.5	23.7	2.3	4.9	4.1	2.4	1.5	1.1	0.9	0.6	7.1
2016	인원수	2,194	1,020	99	171	169	107	69	50	39	25	321
	비율	51.5	23.9	2.3	4.0	4.0	2.5	1.6	1.2	0.9	0.6	7.5
2017	인원수	2,214	1,058	100	171	165	111	68	51	39	38	371
	비율	50.5	24.1	2.3	3.9	3.8	2.5	1.6	1.2	0.9	0.9	8.5
2018	인원수	2,231	1,043	99	199	174	113	63	64	43	36	391
	비율	50.1	23.4	2.2	4.5	3.9	2.5	1.4	1.4	1.0	0.8	8.8
2019	인원수	2,219	1,060	102	207	165	123	93	55	12	73	428
	비율	48.9	23.4	2.2	4.6	3.6	2.7	2.0	1.2	0.3	1.6	9.4
2020	인원수	2,240	1,046	100	233	168	121	103	67	16	43	445
	비율	48.9	22.8	2.2	5.1	3.7	2.6	2.2	1.5	0.3	0.9	9.7
2021	인원수	2,288	1,079	99	215	152	115	101	78	8	24	469
	비율	49.4	23.3	2.1	4.6	3.3	2.5	2.2	1.7	0.2	0.5	10.1
2022	인원수	2,289	1,106	102	222	160	114	93	68	7	35	490
	비율	48.8	23.6	2.2	4.7	3.4	2.4	2.0	1.5	0.1	0.7	10.5
2023	인원수	2,244	1,109	102	223	159	112	116	76	12	26	536
	비율	47.6	23.5	2.2	4.7	3.4	2.4	2.5	1.6	0.3	0.6	11.4

2024	인원수	2,230	1,092	103	221	156	114	106	92	12	34	578
				국내	국외							
					64	157						
2025	인원수	2,205	1,131	102	201	152	113	105	77	19	31	636
				국내	국외							
					53	148						
	비율	47.1	23.0	2.2	4.7	3.3	2.4	2.2	1.9	0.3	0.7	12.2
					1.4	3.3						
	비율	46.2	23.7	2.1	4.2	3.2	2.4	2.2	1.6	0.4	0.6	13.3
					1.1	3.1						

※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24년 9월 10일 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 통계」의 성직자 소임에서 '국내외 연학'을 '국내 연학'과 '국외 연학'으로 구분하였다.

- 교구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1,259명으로 2024년보다 0.6%(7명) 감소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교구 신부 중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2,72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교구(3,628명), 수원교구(3,342명), 인천교구(3,313명), 제주교구(3,261명) 등의 순으로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당 사목 신부의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매년 증감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5.0%(1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교구 신부(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2015-2025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828 (3,594)	1,813 (3,588)	1,764 (3,578)	1,717 (3,533)	1,703 (3,572)	1,680 (3,551)	1,665 (3,537)	1,647 (3,575)	1,626 (3,601)	1,613 (3,664)	1,580 (3,628)
춘천	795 (1,375)	801 (1,377)	799 (1,466)	800 (1,506)	794 (1,449)	812 (1,456)	809 (1,418)	811 (1,401)	808 (1,387)	796 (1,350)	826 (1,506)
대전	893 (1,823)	914 (1,849)	883 (1,816)	898 (1,845)	906 (1,894)	886 (1,887)	867 (1,857)	877 (1,859)	885 (1,913)	894 (1,972)	900 (2,014)
인천	1,655 (3,423)	1,631 (3,273)	1,572 (3,173)	1,548 (3,315)	1,534 (3,344)	1,514 (3,392)	1,518 (3,274)	1,500 (3,163)	1,506 (3,176)	1,522 (3,289)	1,523 (3,313)
수원	1,914 (3,427)	1,904 (3,418)	1,857 (3,425)	1,870 (3,418)	1,828 (3,328)	1,779 (3,270)	1,763 (3,245)	1,727 (3,292)	1,702 (3,344)	1,697 (3,364)	1,686 (3,342)
원주	698 (1,322)	670 (1,213)	667 (1,191)	654 (1,207)	646 (1,302)	642 (1,285)	652 (1,272)	665 (1,411)	669 (1,395)	649 (1,329)	658 (1,383)
의정부	1,490 (2,466)	1,495 (2,479)	1,469 (2,599)	1,453 (2,457)	1,475 (2,447)	1,446 (2,356)	1,420 (2,140)	1,401 (2,101)	1,380 (2,225)	1,395 (2,280)	1,367 (2,461)
대구	1,027 (2,342)	1,015 (2,339)	1,005 (2,299)	1,004 (2,395)	969 (2,369)	1,010 (2,337)	1,000 (2,259)	993 (2,282)	999 (2,393)	1,002 (2,433)	979 (2,397)
부산	1,301 (2,446)	1,309 (2,441)	1,307 (2,446)	1,300 (2,434)	1,289 (2,514)	1,280 (2,498)	1,271 (2,541)	1,269 (2,611)	1,278 (2,738)	1,298 (2,649)	1,290 (2,774)
청주	941 (1,723)	939 (1,768)	921 (1,702)	917 (1,740)	914 (1,828)	911 (1,813)	924 (1,781)	899 (1,770)	897 (1,812)	891 (1,820)	889 (1,815)

마산	1,110 (1,948)	1,108 (1,948)	1,101 (2,111)	1,117 (2,080)	1,125 (2,169)	1,096 (2,192)	1,084 (2,194)	1,054 (2,120)	1,044 (2,149)	1,046 (2,179)	1,045 (2,151)
안동	652 (1,224)	628 (1,130)	626 (1,141)	604 (1,104)	595 (1,189)	588 (1,189)	595 (1,246)	581 (1,216)	570 (1,249)	572 (1,224)	571 (1,250)
광주	1,353 (2,106)	1,348 (2,155)	1,349 (2,186)	1,332 (2,115)	1,315 (2,176)	1,283 (2,150)	1,267 (2,093)	1,267 (2,069)	1,269 (2,133)	1,246 (2,175)	1,232 (2,141)
전주	933 (1,758)	939 (1,793)	937 (1,789)	941 (1,838)	942 (1,850)	943 (1,851)	940 (1,854)	906 (1,820)	916 (1,857)	899 (1,839)	893 (1,843)
제주	1,608 (2,606)	1,580 (2,420)	1,644 (2,722)	1,639 (2,676)	1,596 (3,015)	1,520 (3,040)	1,537 (2,678)	1,492 (2,611)	1,475 (2,711)	1,506 (2,909)	1,541 (3,261)
군종	652 -	735 -	800 -	825 -	854 -	822 -	788 -	764 -	792 -	853 -	978 -
전체	1,350 (2,595)	1,347 (2,585)	1,326 (2,591)	1,317 (2,594)	1,304 (2,627)	1,293 (2,608)	1,283 (2,595)	1,270 (2,599)	1,266 (2,661)	1,266 (2,690)	1,259 (2,724)

※ 교구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각 교구에서 군종교구에 파견된 신부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전체 신자 수에 군종교구 신자 수 포함).

※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고, 군종교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025년 교구 신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5-49세와 50-54세 신부가 각 1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40-44세와 55-59세 각 11.6%, 60-64세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교구 신부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 14.0% 진입, 2025년에는 2015년 대비 8.7%p 증가한 19.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구 사제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0세를 기준으로 2015년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2015년에는 49세 이하의 신부 비율이 60.0%로 더 높았으나 2025년에는 50세 이상 신부의 비율이 56.2%로 더 높게 나타났다.
- 70세 이상 신부<sup>8)</sup> 수는 595명으로 2015년 대비 5.5%p 증가한 12.5%로 나타났다 (표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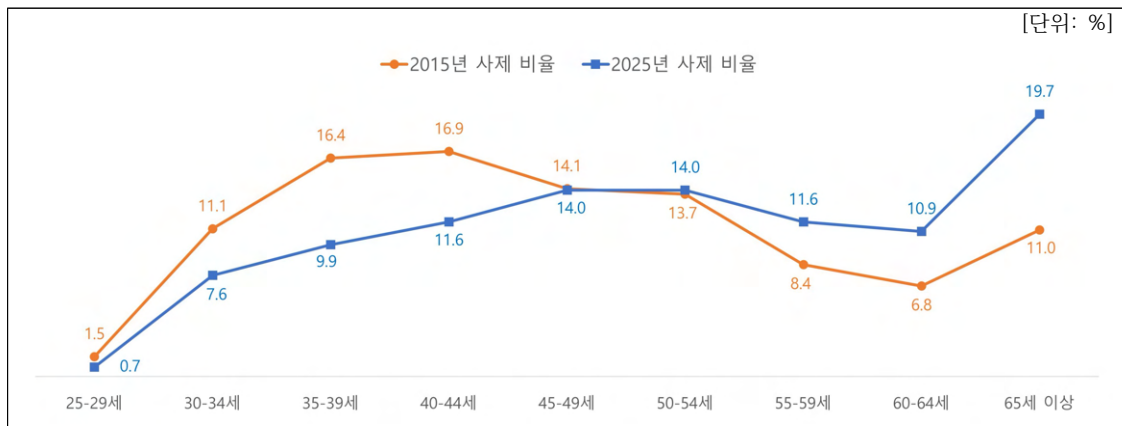
[표 14] 교구 신부 연령별 비율(2015-2025년)

[단위: %]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5	1.5	11.1	16.4	16.9	14.1	13.7	8.4	6.8	11.0	4.1	3.1	2.2	1.6
2016	1.7	9.5	16.3	16.0	15.2	13.1	9.3	7.1	11.6	4.2	3.1	2.5	1.8
2017	2.4	9.0	15.6	15.5	14.6	12.8	10.6	7.1	12.5	4.7	3.2	2.8	1.8
2018	2.3	9.3	14.8	14.9	15.1	12.6	10.8	7.5	12.7	4.6	3.2	2.7	2.2

8) 대부분 교구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교구장에게 성사 전담 사제로 전환을 청원할 수 있으며, 만 70세에 성사 전담 사제가 된다. 성사 전담 사제는 정규 직책에서 물러났으나 고유한 사제직을 유지한 채 성사 집전을 전담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2019	1.5	10.0	12.9	14.7	15.4	12.8	10.9	7.8	14.0	5.0	3.7	2.4	2.9
2020	1.5	9.1	12.0	15.0	14.9	12.8	11.5	8.0	15.1	5.9	3.7	2.6	2.9
2021	1.5	9.4	10.1	15.2	14.5	13.5	11.8	8.2	15.9	6.4	3.7	2.6	3.2
2022	1.4	8.9	9.6	14.6	14.0	14.0	11.4	9.3	16.8	6.7	4.0	2.4	3.7
2023	1.3	8.5	9.8	13.8	13.6	13.9	11.8	9.7	17.5	6.9	4.4	2.6	3.6
2024	1.2	7.6	10.1	12.6	13.8	14.2	11.9	9.9	18.7	7.3	4.6	3.2	3.6
2025	0.7	7.6	9.9	11.6	14.0	14.0	11.6	10.9	19.7	7.2	5.4	3.3	3.8



[그림 15] 교구 신부 연령별 비율(2015년, 2025년)

[표 15] 교구별 신부 수, 원로 사목 신부 수(2015-2025년)

[단위: 명, %]

구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신부 수	846	860	886	912	919	934	943	953	963	969	990
	원로 사목	61 (7.2)	60 (7.0)	71 (8.0)	71 (7.8)	72 (7.8)	72 (7.7)	73 (7.7)	76 (8.0)	94 (9.8)	109 (11.2)	124 (12.5)
춘천	신부 수	111	112	114	115	117	115	116	116	117	119	115
	원로 사목	10 (9.0)	11 (9.8)	12 (10.5)	12 (10.4)	13 (11.1)	15 (13.0)	15 (12.9)	17 (14.7)	16 (13.7)	16 (13.4)	17 (14.8)
대전	신부 수	357	357	377	376	379	388	399	398	396	395	394
	원로 사목	30 (8.4)	36 (10.1)	44 (11.7)	43 (11.4)	43 (11.3)	46 (11.9)	49 (12.3)	48 (12.1)	51 (12.9)	53 (13.4)	57 (14.5)
인천	신부 수	306	315	330	339	346	351	351	356	356	355	354
	원로 사목	16 (5.2)	15 (4.8)	19 (5.8)	23 (6.8)	25 (7.2)	24 (6.8)	24 (6.8)	25 (7.0)	24 (6.7)	24 (6.8)	27 (7.6)
수원	신부 수	464	476	496	501	519	536	544	559	573	580	586
	원로 사목	34 (7.3)	36 (7.6)	39 (7.9)	42 (8.4)	41 (7.9)	45 (8.4)	46 (8.5)	46 (8.2)	50 (8.7)	53 (9.1)	59 (10.1)
원주	신부 수	110	116	118	122	125	125	124	123	123	127	126
	원로 사목	7 (6.4)	7 (6.0)	7 (5.9)	8 (6.6)	11 (8.8)	12 (9.6)	14 (11.3)	14 (11.4)	17 (13.8)	20 (15.7)	22 (17.5)
의정부	신부 수	201	204	212	218	219	225	231	237	243	243	248
	원로 사목	0 (0.0)	0 (0.0)	0 (0.0)	0 (0.0)	1 (0.5)	1 (0.4)	1 (0.4)	2 (0.8)	2 (0.8)	5 (2.1)	12 (4.8)

대구	신부 수	490	501	514	519	542	520	526	530	528	528	532
	월로 사목	34 (6.9)	38 (7.6)	42 (8.2)	46 (8.9)	53 (9.8)	54 (10.4)	54 (10.3)	57 (10.8)	62 (11.7)	70 (13.3)	75 (14.1)
부산	신부 수	352	353	356	360	365	367	370	370	368	363	364
	월로 사목	31 (8.8)	35 (9.9)	36 (10.1)	39 (10.8)	42 (11.5)	42 (11.4)	48 (13.0)	49 (13.2)	49 (13.3)	50 (13.8)	52 (14.3)
청주	신부 수	181	184	189	191	194	195	192	196	197	199	199
	월로 사목	11 (6.1)	14 (7.6)	17 (9.0)	19 (9.9)	21 (10.8)	22 (11.3)	24 (12.5)	27 (13.8)	29 (14.7)	28 (14.1)	31 (15.6)
마산	신부 수	162	165	168	167	167	170	171	176	178	178	178
	월로 사목	14 (8.6)	17 (10.3)	17 (10.1)	21 (12.6)	25 (15.0)	25 (14.7)	30 (17.5)	30 (17.0)	37 (20.8)	40 (22.5)	45 (25.3)
안동	신부 수	79	83	84	88	89	90	90	91	93	93	93
	월로 사목	6 (7.6)	7 (8.4)	8 (9.5)	8 (9.1)	11 (12.4)	12 (13.3)	14 (15.6)	16 (17.6)	18 (19.4)	17 (18.3)	18 (19.4)
광주	신부 수	269	273	276	280	285	292	296	296	296	302	304
	월로 사목	20 (7.4)	21 (7.7)	23 (8.3)	25 (8.9)	28 (9.8)	31 (10.6)	32 (10.8)	34 (11.5)	36 (12.2)	39 (12.9)	39 (12.8)
전주	신부 수	214	215	217	218	219	219	220	228	226	230	232
	월로 사목	21 (9.8)	24 (11.2)	32 (14.7)	34 (15.6)	36 (16.4)	39 (17.8)	41 (18.6)	44 (19.3)	47 (20.8)	50 (21.7)	51 (22.0)
제주	신부 수	47	49	48	49	51	54	54	56	57	56	56
	월로 사목	3 (6.4)	0 (0.0)	4 (8.3)	0 (0.0)	6 (11.8)	5 (9.3)	4 (7.4)	5 (8.9)	4 (7.0)	4 (7.1)	7 (12.5)
전체	신부 수	4,189	4,263	4,385	4,455	4,536	4,581	4,627	4,685	4,714	4,737	4,772
	월로 사목	298 (7.1)	321 (7.5)	371 (8.5)	391 (8.8)	428 (9.4)	445 (9.7)	469 (10.1)	490 (10.5)	536 (11.4)	578 (12.2)	636 (13.3)

[표 16] 70세 이상 교구 신부 수(2015-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70세 이상 교구 신부 수	292 (7.0)	317 (7.4)	340 (7.8)	362 (8.1)	406 (8.9)	420 (9.2)	441 (9.5)	472 (10.1)	500 (10.6)	538 (11.4)	59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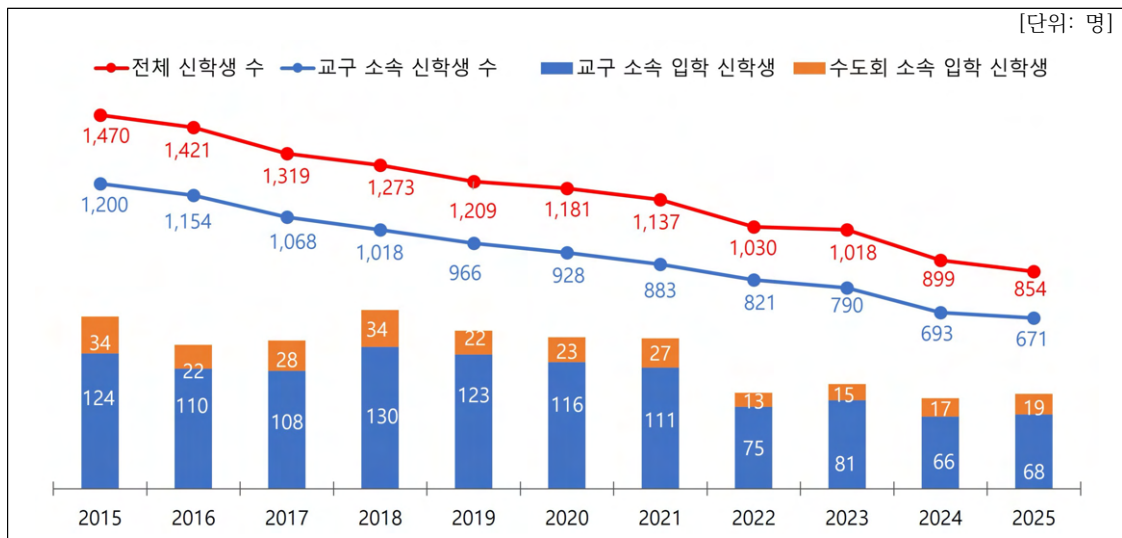
## 2) 신학생 수

▶ 신학생 수는 교구 신학생 671명, 수도회 신학생 183명이며, 신학생 수는 2015년보다 41.9% 감소

▶ 입학 신학생 수는 87명(교구 68명, 수도회 19명)으로 2015년보다 44.9% 감소

□ 2025년 신학생 수는 교구 671명, 수도회 183명으로 총 854명이다. 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5년 1,470명보다 41.9%(6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구 소속 신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3.2%(22명) 감소하였다.
- 수도권 소속 신학생 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50명 내외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2022년 17.7%가 감소하여 209명까지 줄었다. 2025년 수도권 소속 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1.2%(23명) 감소하였다.
- 2025년 입학 신학생은 87명으로 전년 대비 4.8%(4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44.9%(71명) 감소하였다. 2015년 대비 교구 소속 입학 신학생은 45.2%(56명) 감소, 수도권 소속 입학 신학생은 44.1%(15명) 감소하였다.
- 입학 신학생 수는 2022년 100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6] 신학생 및 입학 신학생 수(2015-2025년)

[표 17] 신학생 수(2015-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학생	1,470	1,421	1,319	1,273	1,209	1,181	1,137	1,030	1,018	899	854
교구	1,200	1,154	1,068	1,018	966	928	883	821	790	693	670
증감률	-2.0	-3.8	-7.5	-4.7	-5.1	-3.9	-4.8	-7.0	-3.8	-12.3	-3.3
수도회	270	267	251	255	243	253	254	209	228	206	184
증감률	28.0	-1.1	-6.0	1.6	-4.7	4.1	0.4	-17.7	9.1	-9.6	-10.7
입학 신학생	158	132	136	164	145	139	138	88	96	83	87
교구	124	110	108	130	123	116	111	75	81	66	68
증감률	-2.4	-11.3	-1.8	20.4	-5.4	-5.7	-4.3	-32.4	8.0	-18.5	3.0
수도회	34	22	28	34	22	23	27	13	15	17	19
증감률	3.0	-35.3	27.3	21.4	-35.3	4.5	17.4	-51.9	15.4	13.3	11.8

□ 전국 가톨릭대학교의 평신도 학생 수는 전년 대비 9.9%(8명), 2015년 대비 287.0%(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평신도 학생 수(2015-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신도 학생 수	23	23	28	26	34	26	56	60	71	81	89
증감율	9.5	0.0	21.7	-7.1	30.8	-23.5	115.4	7.1	18.3	14.1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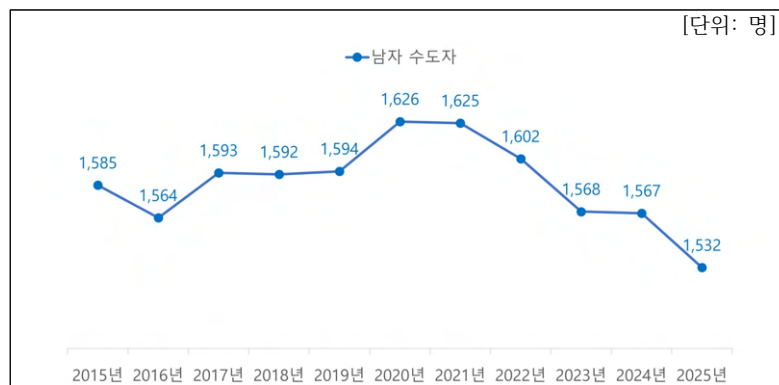
※ 평신도는 사제 지망자, 수사, 수녀를 제외한 일반 학생을 말한다.

## 4. 수도회 및 수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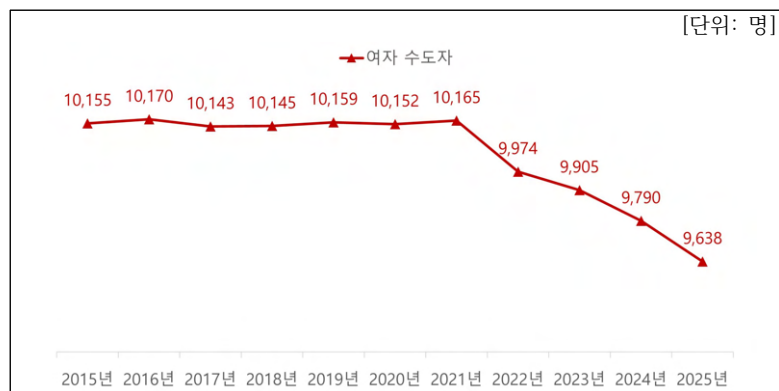
### 1) 수도회 및 수도자 수

- ▶ 수도회는 총 172개로 전년 대비 1개 수도회 감소
- ▶ 수도자 수는 11,170명(남자 1,532명, 여자 9,638명)으로 나타남
- ▶ 수련자 수는 총 164명(남자 35명, 여자 129명)으로 2015년과 비교하여 남자 수련자는 40.7%, 여자 수련자는 61.5% 감소
- ▶ 교구 설립 수도회 및 사도생활단의 유기 서원자와 수련자 중 외국인 비중이 더 높음

- 2025년 한국 교회의 수도회는 총 172개로 전년 대비 1개 수도회가 감소<sup>9)</sup>하였다.
- 2025년 한국 교회의 수도회에 수도자 11,170명이 수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수도자는 지난해보다 35명이 감소한 1,532명, 여자 수도자는 152명이 감소한 9,638명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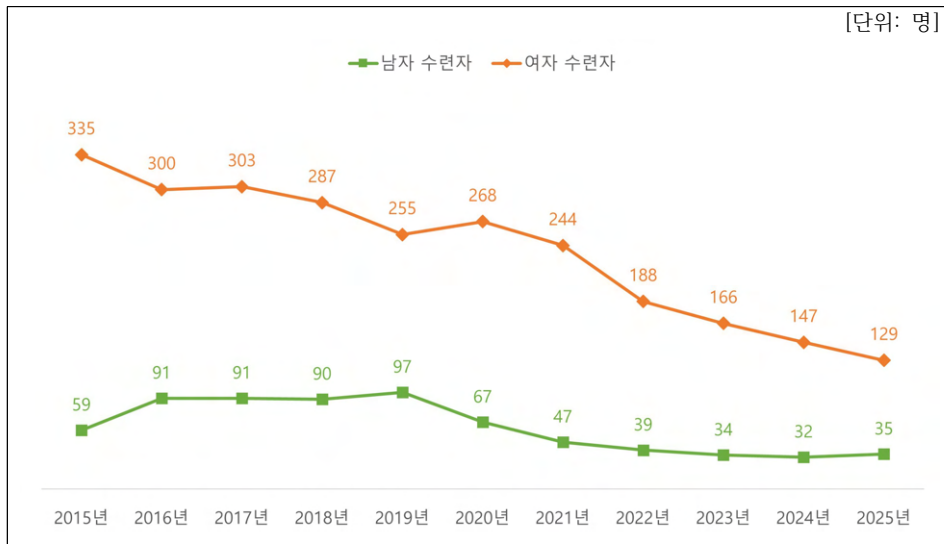
[그림 17] 남자 수도자 수(2015-2025년)



[그림 18] 여자 수도자 수(2015-2025년)

9) 성클라라수도회(장성)가 철수함.

- 2025년 수련자는 남자 35명, 여자는 129명이다. 남자 수련자 수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 소폭 증가(3명)하였고, 여자 수련자는 2017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여 남자 수련자는 40.7%가 감소하였고, 여자 수련자는 61.5%가 감소하였다.



[그림 19] 남녀 수련자 수(2015-2025년)

[표 19] 수도회 및 수도자 수(2015-2025년)

[단위: 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수도회 수	169	169	167	167	169	169	171	173	175	173	172	
수도자	남자	1,585	1,564	1,593	1,592	1,594	1,626	1,625	1,602	1,568	1,567	1,532
	증감률	0.7	-1.3	1.9	-0.1	0.1	2.0	-0.1	-1.4	-2.1	-0.1	-2.2
	여자	10,155	10,170	10,143	10,145	10,159	10,152	10,165	9,974	9,905	9,790	9,638
	증감률	0.0	0.1	-0.3	0.0	0.1	-0.1	0.1	-1.9	-0.7	-1.2	-1.6
수련자	남자	59	91	91	90	97	67	47	39	34	32	35
	증감률	-28.0	54.2	0.0	-1.1	7.8	-30.9	-29.9	-17.0	-12.8	-5.9	9.4
	여자	335	300	303	287	255	268	244	188	166	147	129
	증감률	-7.2	-10.4	1.0	-5.3	-11.1	5.1	-9.0	-23.0	-11.7	-11.4	-12.2

## (1) 남자 수도권

### ▶ 교황청 설립 수도권

- 종신 서원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23년, 2024년에는 감소하였다. 2025년은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한 98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종신 서원자는 3.0%(29명) 증가하였다.
- 유기 서원자는 전년 대비 35.2%(25명) 감소하였으며, 2015년과 비교하면 52.1%(50명) 감소하였다.
- 수련자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25년 수련자는 전년 대비 40%(6명)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 27.6%(8명) 감소하였다.

### ▶ 교구 설립 수도권

- 종신 서원자는 지난 10년 동안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5년 종신 서원자는 2024년 대비 0.6%(2명) 감소하였으며, 2015년 대비 13.2%(37명) 증가하였다.
- 유기 서원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 2017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유기 서원자는 전년 대비 41.0%(16명) 감소하였으며, 2015년 대비 55.8%(29명) 감소하였다. 2017년부터 한국인 유기 서원자가 외국인보다 적게 나타났으나, 2025년에는 한국인 수가 외국인 수보다 더 많아졌다.
- 수련자 수는 매년 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5년 수련자 수는 11명으로 2015년 대비 31.3%(5명) 감소하였다. 2017년부터 외국인 수련자 수가 한국인보다 더 많아졌다.

### ▶ 사도생활단

- 종신 서원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종신 서원자는 152명으로 전년 대비 1.9%(3명) 감소하였으며 2015년 대비 14.1%(25명) 감소하였다.
- 유기 서원자 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유기 서원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6명)하였으나, 2015년 대비 28.6%(15명) 감소하였다. 외국인 유기 서원자의 수는 매년 큰 차이가 없으나 2024년에는 0명이었으며, 2025년엔 2명 증가하였다.
- 수련자 수는 202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78.6%(11명) 감소한 수치이다.

[표 20] 남자 수도자 수(2015-2025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교 황 청  설 립	종신 서원자	958	970	988	989	985	985	990	992	989	978	987
	한국인	865	872	887	894	897	895	898	898	900	897	900
	외국인	93	98	101	95	88	90	92	94	89	81	87
	유기 서원자	96	83	83	72	74	87	83	67	62	71	46
	한국인	95	78	80	68	69	82	80	64	60	66	41
	외국인	1	5	3	4	5	5	3	3	2	5	5
	수련자	29	31	32	34	39	26	13	25	23	15	21
	한국인	27	30	30	30	35	25	11	23	19	11	19
	외국인	2	1	2	4	4	1	2	2	4	4	2
교 구 설 립	종신 서원자	281	290	290	294	295	304	302	308	308	320	318
	한국인	259	265	262	263	265	259	268	272	267	273	271
	외국인	22	25	28	31	30	45	34	36	41	47	47
	유기 서원자	52	46	61	72	75	84	86	76	53	39	23
	한국인	32	24	30	29	26	28	20	20	21	15	17
	외국인	20	22	31	43	49	56	66	56	32	24	6
	수련자	16	43	44	37	44	27	29	12	10	13	11
	한국인	9	22	18	14	21	10	13	4	2	2	3
	외국인	7	21	26	23	23	17	16	8	8	11	8
사 도 생 활 단	종신 서원자	177	162	158	152	153	154	152	154	146	155	152
	한국인	91	95	97	93	98	100	101	104	105	116	113
	외국인	86	67	61	59	55	54	51	50	41	39	39
	유기 서원자	21	13	13	13	12	12	12	5	10	4	6
	한국인	19	11	10	10	9	11	8	3	6	4	4
	외국인	2	2	3	3	3	1	4	2	4	0	2
	수련자	14	17	15	19	14	14	5	2	1	4	3
	한국인	12	13	12	14	12	12	5	1	1	3	2
	외국인	2	4	3	5	2	2	0	1	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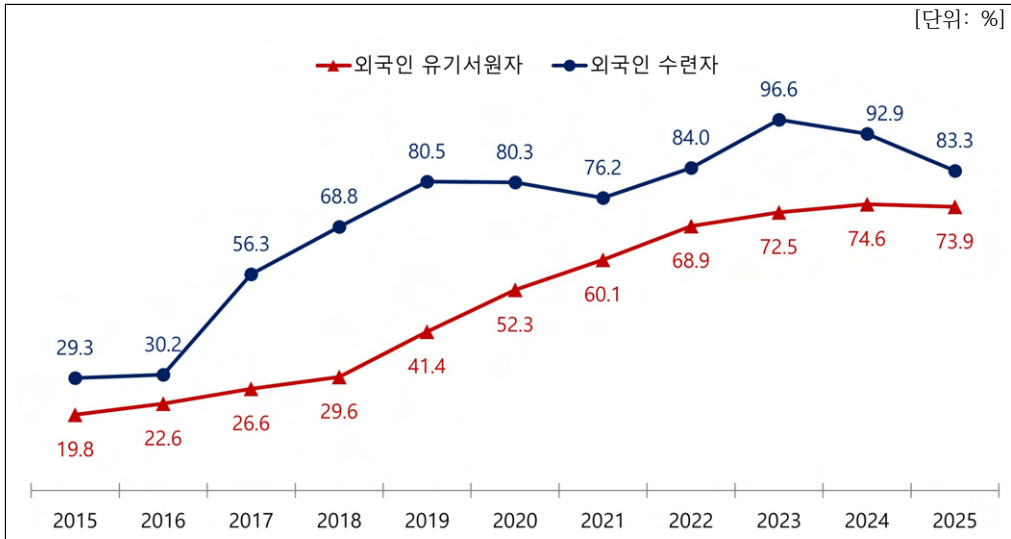
## (2) 여자 수도권회

### ▶ 교황청 설립 수도권회

- 종신 서원자 수는 202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6,112명으로 2024년 대비 0.4%(24명) 감소하였으며 2015년 대비 7.7%(438명) 증가하였다.
- 유기 서원자 수는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유기 서원자 수는 189명으로 전년 대비 8.7%(18명) 감소였으며 2015년 대비 58.8%(269명) 감소하였다. 외국인 유기 서원자 수는 전년 대비 26.9%(49명) 감소하였으나 2015년 대비 30.2%(78명)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인 유기 서원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유기 서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수련자 수는 60명으로 전년보다 1명 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외국인 수련자 수는 2015년부터 큰 차이가 없으며 한국인 수련자 수는 2015년 대비 78.3%(141명) 감소하여 전체 수련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교구 설립 수도권회

- 종신 서원자 수는 2022년에 전년보다 511명 감소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은 2015년 대비 18.3%(661명) 감소한 2,951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84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4.3%(2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유기 서원자 수는 전년 대비 26.2%(64명) 감소하였으며 2015년 대비 30.2%(78명) 감소하였다. 유기 서원자 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부터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유기 서원자 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유기 서원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감소하여 2025년에 2015년 대비 77.3%(160명) 감소한 4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유기 서원자 수는 2024-2025년에 감소하였으나 2015년 대비 160.8%(82명) 증가한 13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외국인 유기 서원자 비율이 52.3%를 나타내면서 한국인 비율보다 많아졌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73.9%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 수련자 수는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다. 수련자 역시 2016년까지는 한국인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17년부터 외국인 수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한국인과 외국인 수련자의 비율은 70.7% 대 29.3%였으나 2025년에는 16.7% 대 83.3%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한국인 수련자 수는 9명이다.



[그림 20] 교구 설립 수도권(여자) 유기 서원자, 수련자 외국인 비율(2015-2025년)

▶ 재속회

- 종신 서원자는 2025년 46명으로 2015년보다 3명이 증가하였다. 유기 서원자는 7명으로 2015년보다 3명 감소, 수련자는 2명으로 2015년과 동일하다.

▶ 사도생활단

- 종신 서원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54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2015년 대비 50.0%(18명) 증가하였다. 한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종신 서원자가 10년 사이 450%가 늘어 전체 종신 서원자에서 40.7%를 차지하였다.
- 유기 서원자 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 유기 서원자 비율이 외국인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 유기 서원자 수는 2-4명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 수련자 수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25년 13명으로 2015년 대비 116.7%(7명) 증가하였다. 한국인 수련자 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명이었으나 2019년부터 3명 이하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0명, 2025년 현재 1명이다. 외국인 수련자는 2015년 4명에서 2025년 12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1] 여자 수도자 수(2015-2025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교 향 청 설 립	종신 서원자	5,674	5,746	5,795	5,805	5,826	5,832	5,874	6,198	6,165	6,136	6,112
	한국인	5,540	5,608	5,660	5,659	5,679	5,685	5,730	6,039	6,023	6,003	5,975
	외국인	134	138	135	146	147	147	144	159	142	133	137
	유기 서원자	458	400	356	349	316	289	264	271	221	207	189
	한국인	416	350	300	295	267	234	203	198	179	154	139
	외국인	42	50	56	54	49	55	61	73	42	53	50
	수련자	211	176	161	141	113	110	83	86	62	59	60
	한국인	180	150	142	115	83	76	63	62	47	36	39
	외국인	31	26	19	26	30	34	20	24	15	23	21
교 구 설 립	종신 서원자	3,663	3,680	3,647	3,661	3,654	3,651	3,634	3,123	3,120	3,084	3,035
	한국인	3,612	3,617	3,594	3,587	3,575	3,563	3,543	3,035	3,024	2,973	2,951
	외국인	51	63	53	74	79	88	91	88	96	111	84
	유기 서원자	258	243	241	226	251	266	276	267	280	244	180
	한국인	207	188	177	159	147	127	110	83	77	62	47
	외국인	51	55	64	67	104	139	166	184	203	182	133
	수련자	116	116	126	128	128	137	143	94	89	70	54
	한국인	82	81	55	40	25	27	34	15	3	5	9
	외국인	34	35	71	88	103	110	109	79	86	65	45
재 속 회	종신 서원자	43	41	40	41	47	48	48	49	50	48	46
	유기 서원자	10	8	8	7	8	7	7	9	7	7	7
	수련자	2	0	2	0	1	5	6	3	3	3	2
사 도 생 활 단	종신 서원자	36	38	39	40	43	42	45	44	49	54	54
	한국인	32	32	33	34	36	36	34	32	32	33	32
	외국인	4	6	6	6	7	6	11	12	17	21	22
	유기 서원자	13	14	17	16	14	17	17	13	13	10	15
	한국인	4	3	3	3	2	2	3	3	4	3	4
	외국인	9	11	14	13	12	15	14	10	9	7	11
	수련자	6	8	14	18	13	16	12	5	12	15	13
	한국인	2	5	5	5	3	3	1	0	2	3	1
	외국인	4	3	9	13	10	13	11	5	10	12	12

## 2) 사도직 활동 현황

- 2025년 1,532명의 남자 수도자 중 802명(해외 파견 제외)이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 기관 17.1%(137명), 교회 기관 12.5%(100명), 전교 활동 11.6%(93명), 교육 기관 5.7%(46명), 특수 사도직 4.5%(3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도직 활동 비율이 2024년보다 낮아졌다.
- 2025년 9,638명의 여자 수도자 중 6,905명(해외 파견 제외)이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교 활동 23.6%(1,629명), 사회 복지 기관 16.5%(1,141명), 교회 기관 7.2%(495명), 의료 기관 7.1%(488명), 교육 기관 6.5%(450명) 등의 순이다. 전교 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사회 복지 기관과 교육 기관 종사자 비율 역시 2024년보다 낮아졌다.
- 남녀 수도자 모두 기타 사도직 활동 비율이 점차 늘어나 2025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활동은 여러 활동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수도회 내부 소임(남자 수도회 78.9%, 여자 수도회 83.0%)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표 22] 수도자 사도직 활동 현황 비율(2015-2025년)

[단위: %]

구분	전교 활동	교육 기관	의료 기관	사회 복지 기관	특수 사도직	출판 홍보 기관	교회 기관	기타	
남자 수도자	2015	12.5	10.7	5.2	28.3	4.7	7.0	13.1	18.3
	2016	10.7	11.0	4.8	24.2	6.0	6.6	11.1	25.5
	2017	10.9	10.9	4.4	25.2	6.5	5.0	16.1	21.1
	2018	12.2	11.4	4.7	24.4	5.1	7.6	14.8	19.8
	2019	13.1	10.1	4.7	22.0	7.1	6.5	12.2	24.5
	2020	12.2	10.1	4.3	23.9	6.3	5.8	14.4	23.1
	2021	11.9	9.3	4.4	20.9	6.7	4.6	11.7	30.6
	2022	10.4	6.8	3.2	21.3	6.9	4.6	14.8	32.0
	2023	16.3	6.8	2.1	20.0	5.1	3.7	14.4	31.7
	2024	12.5	6.4	2.9	20.0	6.7	3.9	13.3	34.3
	2025	11.6	5.7	2.7	17.1	4.5	3.4	12.5	42.5
여자 수도자	2015	31.1	9.4	9.2	24.0	3.3	2.6	7.6	12.7
	2016	30.8	9.8	9.0	21.9	3.8	2.7	6.7	15.3
	2017	30.5	9.8	8.9	22.5	3.6	3.3	7.2	14.2
	2018	28.9	9.7	8.7	20.7	4.2	3.3	7.4	17.1
	2019	29.2	9.6	8.8	20.9	5.5	2.9	7.0	16.1
	2020	27.6	9.4	9.0	19.8	5.3	2.9	7.7	18.3
	2021	27.3	9.1	8.3	20.4	4.5	3.0	7.2	20.3
	2022	25.7	8.0	7.7	19.3	4.6	2.8	6.9	24.9
	2023	24.2	7.1	7.4	18.4	3.8	2.6	6.8	29.7
	2024	24.1	6.8	7.0	17.3	4.0	2.4	7.2	31.2
	2025	23.6	6.5	7.1	16.5	4.6	2.4	7.2	32.3

## 5. 성사 활동

### 1) 세례성사

#### (1) 총 영세자 수

- ▶ 2025년 영세자는 64,073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 군종교구를 제외하였을 경우, 0.5% 감소
- ▶ 영세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3.9%p 하락
- ▶ 어른 세례는 전년 대비 15.5% 증가
- ▶ 유아 세례는 5.6%, 죽을 위험 중 세례<sup>10)</sup>는 1.6% 감소
-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영세자 대비 79.1%의 수준으로 회복

- 2025년 한국 천주교회의 영세자 수는 64,073명으로 전년 대비 9.8%(5,725명) 증가하였다. 이는 군종 세례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군종교구(14,897명, 전체 영세자의 23% 차지)를 제외하였을 경우,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다.
- 세례의 유형별로는 유아 세례 18.5%(11,854명), 어른 세례 75.4%(48,342명), 죽을 위험 중 세례 6.1%(3,877명)로 나타났다. 2024년보다 어른 세례는 15.5%(6,489명) 증가하였으나 유아 세례는 5.6%(700명), 죽을 위험 중 세례는 1.6%(64명)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9년 영세자 대비 79.1%의 회복률을 나타낸다. 유아 세례는 2019년 유아 세례의 66.6%에 해당하며, 어른 세례는 83.1%에 해당한다.

[표 23] 영세자 수(2015-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어른 세례	85,846	81,998	69,754	56,856	58,198	21,453	23,822	26,031	34,511	41,853	48,342
유아 세례	24,675	23,528	21,530	18,942	17,806	5,862	9,710	11,853	12,832	12,554	11,854
죽을 위험 중 세례	5,622	5,613	5,510	5,107	5,035	2,970	3,008	3,500	3,964	3,941	3,877
합계	116,143	111,139	96,794	80,905	81,039	30,285	36,540	41,384	51,307	58,348	64,073
증감률	-6.9	-4.3	-12.9	-16.4	0.2	-62.6	20.7	13.3	24.0	13.7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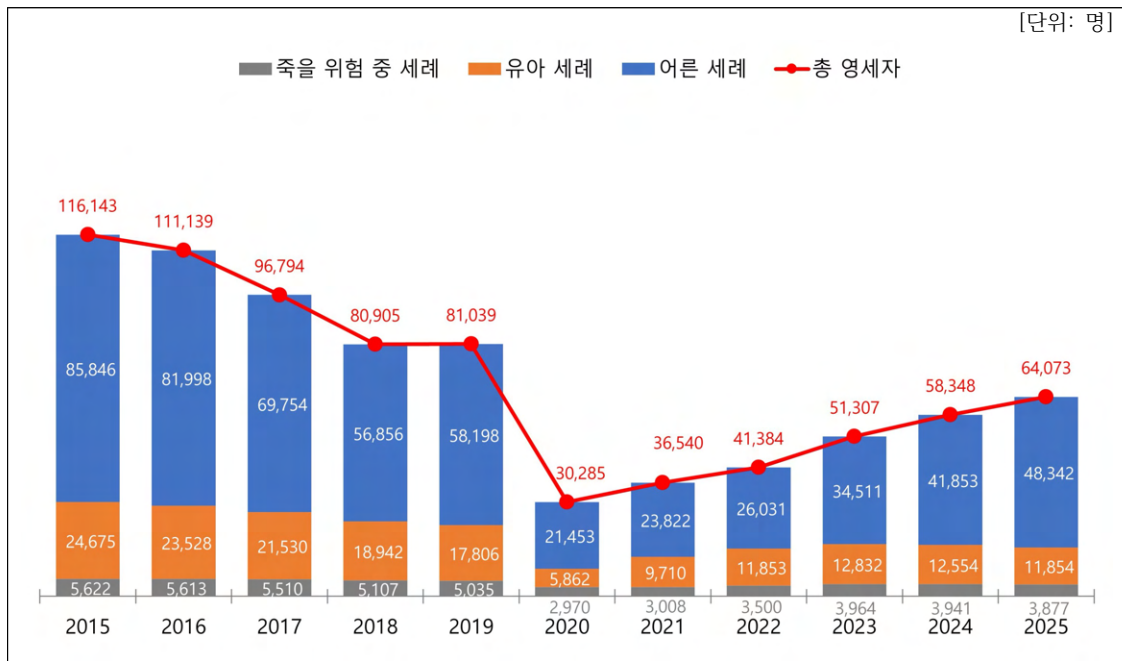
10) 주교회의의 2024년 춘계 정기 총회 결정에 따라 '대세(임종 세례)'를 '죽을 위험 중 세례'로 수정함.

- 한국 천주교회의 영세자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하여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전년보다 62.6% 감소한 30,285명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1년부터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에는 증가율이 전년 대비 3.9%p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표 24] 세례 유형별 비중(2015-2025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어른 세례	73.9	73.8	72.1	70.3	71.8	70.8	65.2	62.9	67.3	71.7	75.4
유아 세례	21.2	21.2	22.2	23.4	22.0	19.4	26.6	28.6	25.0	21.5	18.5
죽을 위험 중 세례	4.8	5.1	5.7	6.3	6.2	9.8	8.2	8.5	7.7	6.8	6.1



[그림 21] 영세자 수(2015-2025년)

- 어른 세례의 비율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2025년 어른 세례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죽을 위험 중 세례의 비중은 2015년에 4.8%를 차지하였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9.8%까지 늘어났다. 2020년 이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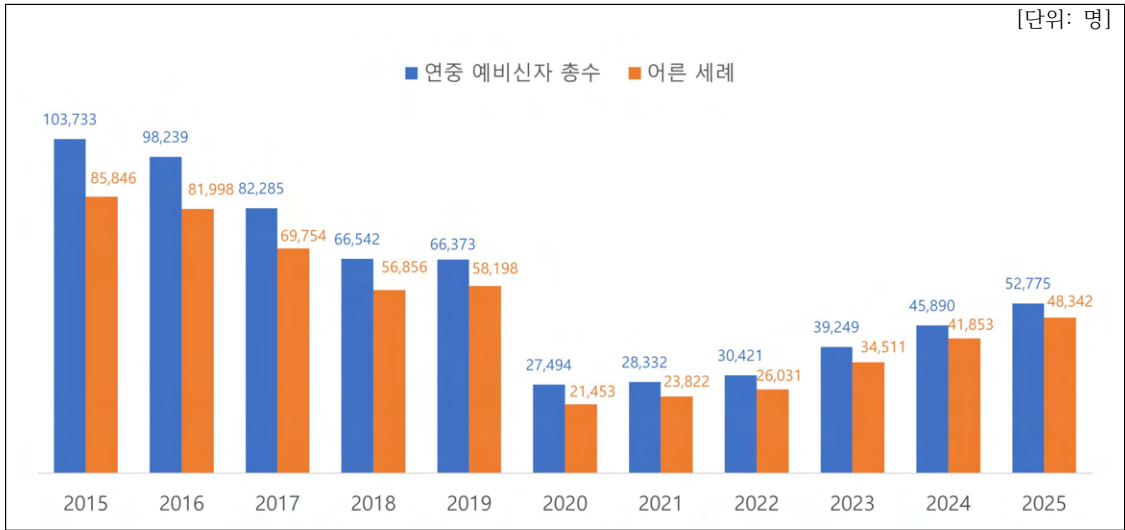
- 지난 10년 동안 유아 세례의 비율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가 넘게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26.6%, 28.6%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3년부터는 다시 비율이 감소하여 2025년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18.5%의 비율을 나타냈다.
- 신앙 전수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유아 세례의 경우, 2015년 대비 52.0% 감소하였다. 0-9세 주민등록인구와 신자 수, 영세자 수를 10년 전인 2015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주민등록인구 감소율 -35.7%보다 신자 수 및 영세자 수 감소율이 각 -51.5%, -51.7%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표 25 참조). 이는 유아 세례 감소 현상에 있어 출산을 저하가 큰 영향을 미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역시 크게 작용하지만, 가정 내 신앙 전수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 연도별 0-9세 주민등록 인구 및 신자 수, 연도별 영세자 수

[단위: 명, %]

연도	0-9세 주민등록인구	0-9세 신자 수	0-9세 영세자 수
2015	4,601,688	183,851	25,625
2016	4,566,168	182,564	24,597
2017	4,435,198	176,405	22,516
2018	4,303,062	168,987	19,951
2019	4,166,914	161,633	18,740
2020	3,970,070	141,402	6,298
2021	3,760,350	126,713	9,912
2022	3,532,642	92,664	10,934
2023	3,332,892	103,290	13,214
2024	3,140,118	97,317	13,192
2025	2,959,223	89,149	12,379
2015년 대비 증감률	-35.7	-51.5	-51.7
2019년 대비 증감률	-29.0	-44.8	-33.9

- 2025년 등록된 예비신자 수는 48,342명으로 전년 대비 5.3%(2,452명)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율은 11.6%p 감소하여 증가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신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27.2% 감소한 수준이지만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25년은 2019년의 72.8% 수준까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다.
- 등록된 예비신자 수 대비 그해 세례를 받은 어린 세례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높아지는데,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8.0%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5년은 91.6%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 연중 예비선거 총수, 어른 세레자 수(2015-2025년)

[표 26] 연중 예비선거 총수 및 증감률, 어른 세레자 수(2015-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중 예비선거 총수	103,733	98,239	82,285	66,542	66,373	27,494
증감률	-	-5.3	-16.2	-19.1	-0.3	-58.6
어른 세레자 중 예비선거 총수 비율	82.8	83.5	84.8	85.4	87.7	78.0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중 예비선거 총수	28,332	30,421	39,249	45,890	48,342	
증감률	3.0	7.4	29.0	16.9	5.3	
어른 세레자 중 예비선거 총수 비율	84.1	85.6	87.9	91.2	91.6	

## (2) 연령별, 성별 영세자 수

- ▶ 2025년 영세자는 남성 56.7%, 여성 43.3%로 나타남
- ▶ 영세자의 연령별 비율은 20-24세(20.1%), 0-4세(11.3%), 5-9세(8.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20-24세 영세자의 95.1%가 남성으로, 군인 세레가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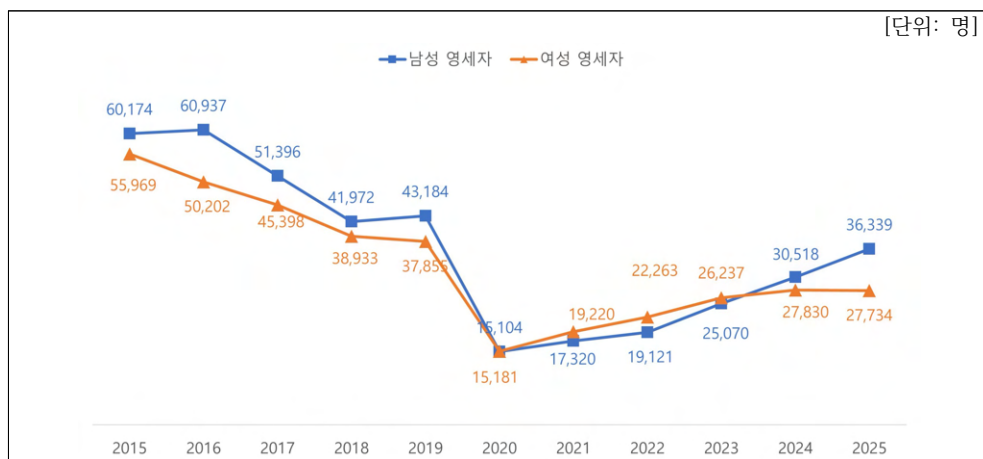
□ 2025년 영세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36,339명(56.7%), 여성이 27,734명(43.3%)으로 지난해보다 남성 비율이 4.4%p 증가하였다.

- 2019년까지는 남성 영세자가 더 많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영세자 수가 남성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2024년부터 군종교구 영세자 수 증가에 영향을 받아 다시 남성 영세자 수가 여성보다 더 많아졌다.

[표 27] 연령별 남녀 영세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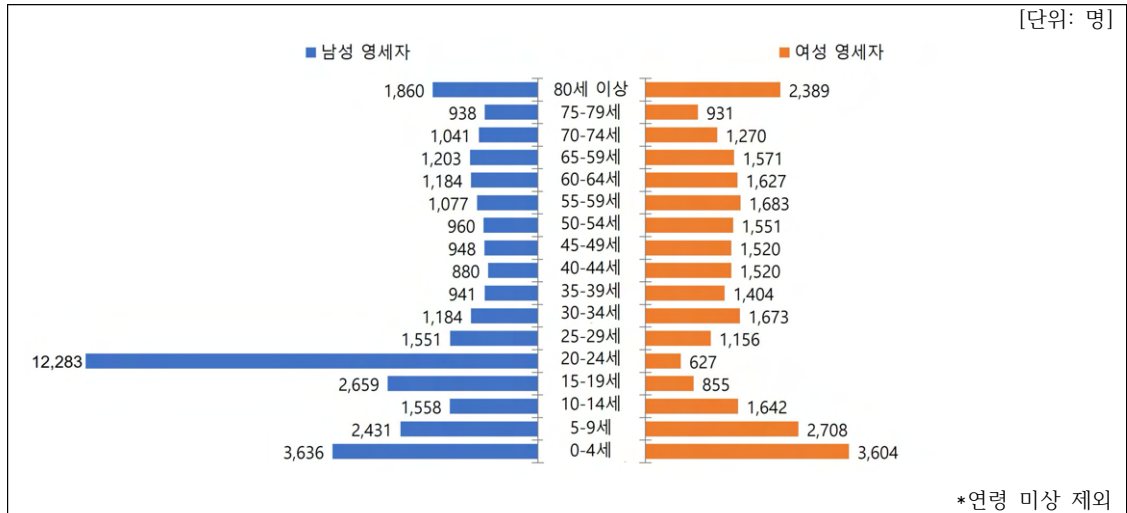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영세자 수	연령별 비율	남성		여성	
			영세자 수	비율	영세자 수	비율
0-4세	7,240	11.3	3,636	50.2	3,604	49.8
5-9세	5,139	8.0	2,431	47.3	2,708	52.7
10-14세	3,200	5.0	1,558	48.7	1,642	51.3
15-19세	3,514	5.5	2,659	75.7	855	24.3
20-24세	12,910	20.1	12,283	95.1	627	4.9
25-29세	2,707	4.2	1,551	57.3	1,156	42.7
30-34세	2,857	4.5	1,184	41.4	1,673	58.6
35-39세	2,345	3.7	941	40.1	1,404	59.9
40-44세	2,400	3.7	880	36.7	1,520	63.3
45-49세	2,468	3.9	948	38.4	1,520	61.6
50-54세	2,511	3.9	960	38.2	1,551	61.8
55-59세	2,760	4.3	1,077	39.0	1,683	61.0
60-64세	2,811	4.4	1,184	42.1	1,627	57.9
65-69세	2,774	4.3	1,203	43.4	1,571	56.6
70-74세	2,311	3.6	1,041	45.0	1,270	55.0
75-79세	1,869	2.9	938	50.2	931	49.8
80세 이상	4,249	6.6	1,860	43.8	2,389	56.2
연령 미상	8	0.0	5	62.5	3	37.5
합계	64,073	100.0	36,339	56.7	27,734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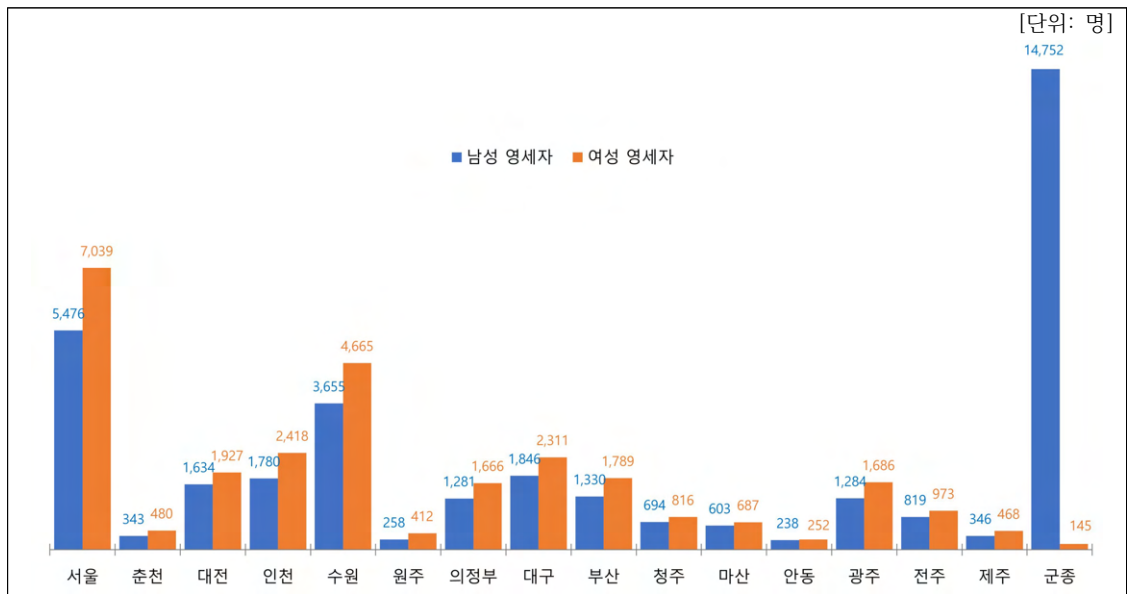
[그림 23] 남녀 영세자 수(2015-2025년)

- 14세 이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영세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5-19세에서는 남성 영세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세 남성 영세자의 비율은 95.1%로 여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종교구의 2025년 남성 영세자 수인 14,752명 중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30세 이상부터는 여성 영세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연령별 영세자 비율은 20-24세(20.1%), 0-4세(11.3%), 5-9세(8.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연령별 남녀 영세자 수

- 2025년 영세자는 군종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교구별 남녀 영세자 수

### (3) 교구별 영세자 수

- ▶ 전년 대비 영세자 수는 안동(10.6%), 원주(6.2%), 전주(6.0%) 교구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제주(-12.5%), 수원(-7.2%), 의정부(-3.3%) 교구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 군종교구 영세자 수는 전년 대비 67.1% 증가한 14,897명
- ▶ 교구별 영세자 수는 모든 교구에서 10년 전인 2015년보다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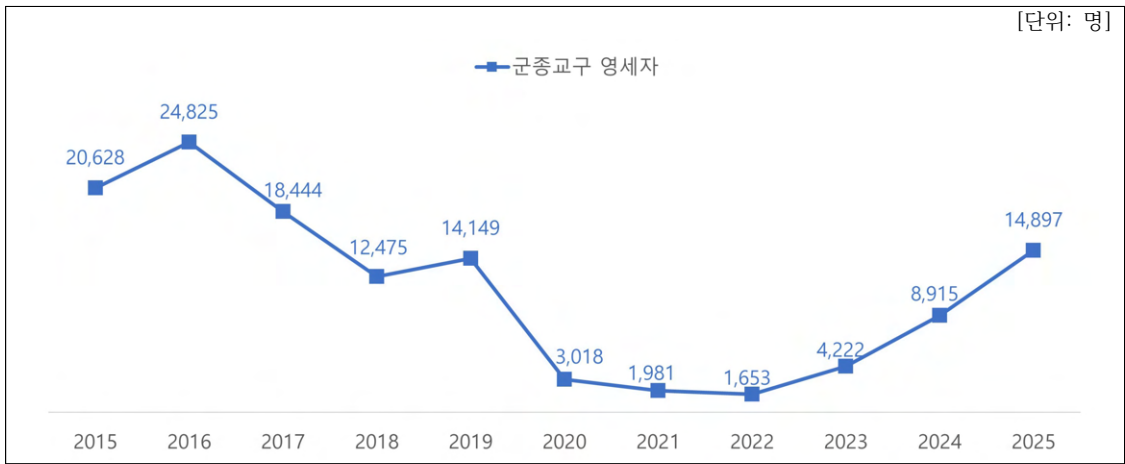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영세자 수는 안동교구가 10.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원주(6.2%), 전주(6.0%), 대전(4.9%), 대구(4.3%) 교구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2024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던 제주교구는 2025년에 -12.5%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2024년에 증가율을 보였던 수원(-7.2%), 의정부(-3.3%), 인천(-2.9%) 교구에서 영세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군종교구 영세자는 전년 대비 111.2% 증가한 8,915명이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7.1% 증가한 14,897명으로 나타났다.
- 모든 교구에서 10년 전인 2015년보다 영세자가 감소하였다. 부산교구가 -54.6%로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52.4%), 안동(-52.2%), 서울(-52.0%) 교구에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영세자 수와 비교했을 때는 군종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영세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부산(-36.8%), 춘천(-35.3%), 마산(-33.6%) 교구에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표 28] 2015년, 2019년, 2024년 대비 2025년 교구별 영세자 수 증감률

[단위: 명, %]

구분	총 영세자 수	2025년 영세자 수 증감률		
		2015년 대비	2019년 대비	2024년 대비
서울	12,515	-52.0	-26.1	1.8
춘천	823	-49.6	-35.3	1.5
대전	3,561	-40.5	-22.6	4.9
인천	4,198	-52.4	-26.9	-2.9
수원	8,320	-46.4	-19.2	-7.2
원주	670	-38.6	-24.6	6.2
의정부	2,947	-46.2	-28.2	-3.3
대구	4,157	-45.7	-29.4	4.3
부산	3,119	-54.6	-36.8	2.9
청주	1,510	-48.9	-29.8	-2.6

마산	1,290	-47.8	-33.6	-1.1
안동	490	-52.2	-21.1	10.6
광주	2,970	-45.2	-22.6	-1.9
전주	1,792	-41.5	-29.9	6.0
제주	814	-43.6	-27.8	-12.5
군종	14,897	-27.8	5.3	67.1
합계	64,073	-44.8	-20.9	9.8
군종 제외 합계	49,176	-48.5	-26.5	-0.5



[그림 26] 군종교구 영세자 수(2015-2025년)

- 교구별 본당 평균 예비신자 전국 평균 수는 2024년보다 3명 증가한 29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교구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군종교구 제외). 그다음으로는 수원(29명), 의정부(26명), 인천(25명) 교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4개 교구에서 본당 평균 예비신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본당 평균 예비신자 수가 가장 적은 교구는 원주와 안동 교구로 9명이며, 춘천(11명), 마산(13명) 교구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9] 교구별 본당 평균 예비신자 수(교구별 예비신자 수/본당 수)(2015-2025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97	78	69	59	57	25	27	30	36	38	40
춘천	25	25	20	16	16	9	9	9	11	11	11
대전	38	34	25	22	23	11	13	13	15	16	18
인천	59	54	44	37	34	18	19	18	23	26	25
수원	67	60	52	40	36	17	18	21	26	29	29

원주	18	17	15	13	13	6	6	6	10	9	9
의정부	58	55	44	35	37	17	16	20	25	25	26
대구	40	39	34	28	27	11	14	16	18	19	19
부산	47	40	38	33	34	18	17	17	20	19	22
청주	37	35	33	30	26	11	10	12	14	16	15
마산	30	28	25	20	20	7	10	10	13	12	13
안동	22	17	16	13	12	5	6	7	9	8	9
광주	43	35	29	24	23	12	12	13	16	16	17
전주	29	27	22	23	23	11	13	12	14	15	15
제주	43	46	39	36	33	20	21	15	18	23	20
군종	216	256	190	129	148	31	20	16	43	92	158
전체 교구	61	57	47	38	38	16	16	17	22	26	29
전체 교구 (군종 제외)	52	45	39	33	32	15	16	17	21	22	22

※ 전체 교구 본당 평균 예비신자 수: 예비신자 연중 총수/전체 본당 수

[표 30] 본당 평균 예비신자 수 증감률(2015년, 2019년 대비)

[단위: %]

구분	2015년 대비	2019년 대비
서울	-58.8	-29.8
춘천	-56.0	-31.3
대전	-52.6	-21.7
인천	-57.6	-26.5
수원	-56.7	-19.4
원주	-50.0	-30.8
의정부	-55.2	-29.7
대구	-52.5	-29.6
부산	-53.2	-35.3
청주	-59.5	-42.3
마산	-56.7	-35.0
안동	-59.1	-25.0
광주	-60.5	-26.1
전주	-48.3	-34.8
제주	-53.5	-39.4
군종	-26.9	6.8
합계	-52.5	-23.7
합계 (군종 제외)	-57.7	-31.3

- 2015년 본당 평균 예비신자 수와 비교하면 광주대교구의 감소율이 -60.5%로 가장 높고, 청주(-59.5%), 안동(-59.1%), 서울(-58.8%) 교구 순으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군종교구는 -26.9%의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본당 평균 예비신자 수와 비교하면 청주교구가 -42.3%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39.4%), 부산(-35.3%), 마산(-35.0%) 교구 순으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군종교구는 16개 교구 중 유일하게 2019년 대비 예비신자 수가 증가(6.8%)하였다.

## 2) 주일 미사와 판공성사

- ▶ 주일 미사 평균 참여자 수는 928,195명으로, 전체 신자 대비 주일 미사 참여율은 15.5%로 나타남(전년 대비 0.4%p 증가)
- ▶ 주일 미사 평균 참여자 수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85.9%(본당 참여자 수로만 비교할 경우, 82.0%) 회복됨
- ▶ 부활 판공성사 대상자의 25.1% 참여(전년 대비 0.6%p 증가), 성탄 판공성사 대상자의 25.0% 참여(전년 대비 0.8%p 증가)

- 2025년 한국 천주교회의 주일 미사 참여자는 928,195명이며 주일 미사 참여율은 15.5%로 전년도인 2024년보다 0.4%p 증가하였다.<sup>11)</sup> 그러나 증가율(수도회 제외)은 2.3%로 나타나 전년 대비 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부활 판공성사는 대상자(3,123,295명)의 25.1%(전년 대비 0.6%p 증가), 성탄 판공성사는 대상자(3,121,143명)의 25.0%(전년 대비 0.8%p 증가)가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성사 활동이 중단되어 2020년 큰 폭으로 감소한 판공성사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부활 판공성사 참여자 수는 2019년의 78.9%, 성탄 판공성사 참여자 수는 2019년의 80.6%까지 회복하였다.
- 2020년 주일 미사 참여자는 2019년의 53.5% 수준이었고, 2021년은 2019년의 48.3%, 2022년은 64.7%, 2023년은 74.5%, 2024년은 83.6%, 2025년은 85.9%까지 회복되었다. 2024년 이전 주일 미사 참여자 수와 같은 조건인 '본당'에서 주일 미사에 참여한 신자 수로만 비교할 경우 2019년 대비 82.0%까지 회복되었다.

11) 주교회의 2023년 추계 정기 총회 결정에 따라 2024년부터 본당 외 다른 곳(성지, 병원 원목실, 사회복지 시설, 사회 사목 시설 등)에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주일 미사 참여자 수'에 포함하였으며, 수도원에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수를 파악하고자 '수도회' 항목을 신설하였다. 만일 2023년 조사 대상과 같은 조건으로 본당 내 미사 참여자 수만 집계한다면 2025년 한국 천주교회의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886,459명으로 미사 참여율은 14.8%(전년 대비 0.4%p 증가)로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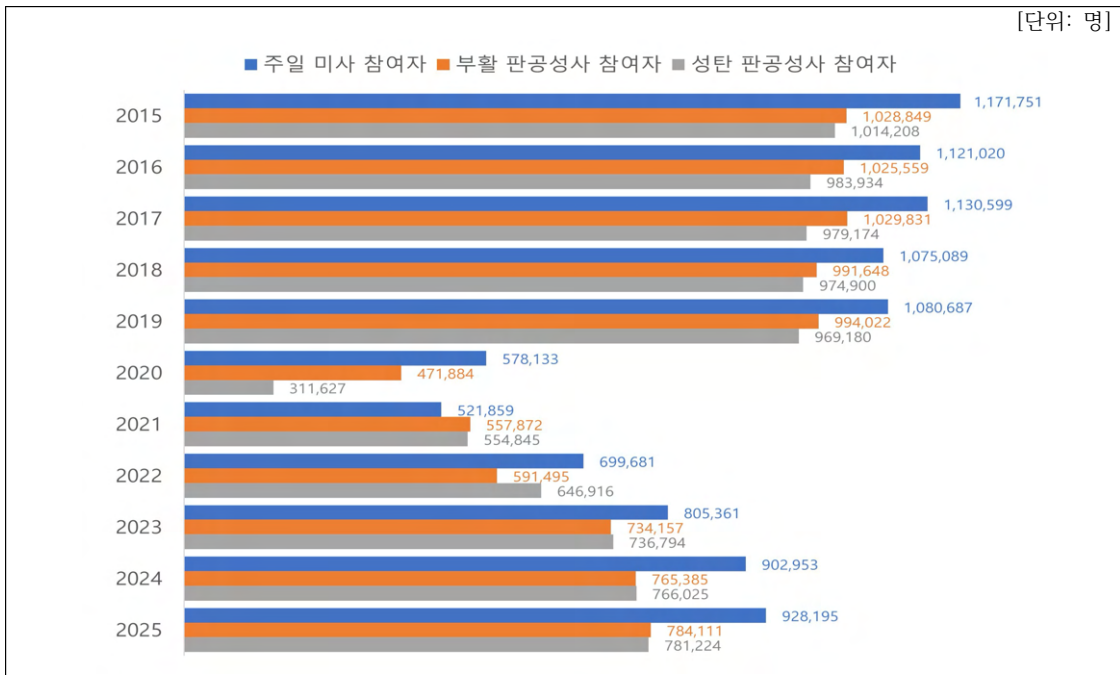
[표 31] 주일 미사와 판공성사 참여자 수(2015-2025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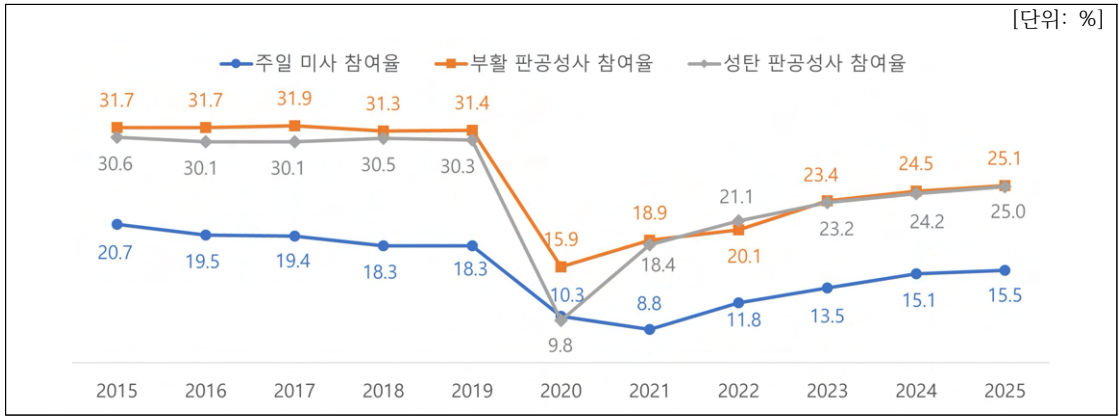
구분	주일 미사		부활 판공성사		성탄 판공성사	
	참여자 수	증감률	참여자	증감률	참여자	증감률
2015	1,171,751	2.0	1,028,849	-3.9	1,014,208	-0.2
2016	1,121,020	-4.3	1,025,559	-0.3	983,934	-3.0
2017	1,130,599	0.9	1,029,831	0.4	979,174	-0.5
2018	1,075,089	-4.9	991,648	-3.7	974,900	-0.4
2019	1,080,687	0.5	994,022	0.2	969,180	-0.6
2020	578,133*	-46.5	471,884	-52.5	311,627	-67.8
2021	521,859	-9.7	557,872	18.2	554,845	78.0
2022	699,681	34.1	591,495	6.0	646,916	16.6
2023	805,361	15.1	734,157	24.1	736,794	13.9
2024	902,953	12.1	765,385	4.3	766,025	4.0
2025	928,195	2.8	784,111	2.4	781,224	2.0
2015년 대비 증감률	-20.8		-23.8		-23.0	
2019년 대비 증감률	-14.1		-21.1		-19.4	

※ 2020년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실시한 자체 조사임(의정부교구 제외)

※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매 주일 참여자 수의 평균이다.



[그림 27] 주일 미사, 판공성사 참여자 수(2015-2025년)



[그림 28] 주일 미사, 판공성사 참여율(2015-2025년)

□ 교구별 2025년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제주교구가 전년 대비 29.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원(6.8%), 안동(4.4%), 의정부(2.5%) 교구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군종교구 제외). 반면, 인천(-4.1%), 춘천(-2.7%), 마산(-1.7%), 대전(-0.4%) 교구 순으로 주일 미사 참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2015년, 2019년, 2024년 대비 2025년 교구별 주일 미사 참여자 수

[단위: 명, %]

구분	주일 미사 참여자 수				증감률		
	2015년	2019년	2024년	2025년	2015년 대비	2019년 대비	2024년 대비
서울	325,413	258,329	206,363 (202,891)	211,153 (208,737)	-35.1	-18.3	2.3 (2.9)
춘천	23,329	20,996	18,418 (18,206)	17,922 (17,690)	-23.2	-14.6	-2.7 (-2.8)
대전	72,013	73,100	73,694 (57,755)	73,427 (58,754)	2.0	0.4	-0.4 (1.7)
인천	96,831	102,158	85,013 (84,692)	81,540 (81,210)	-15.8	-20.2	-4.1 (-4.1)
수원	191,481	185,981	148,088 (145,151)	158,187 (154,229)	-17.4	-14.9	6.8 (6.3)
원주	15,280	14,594	12,495 (12,160)	12,617 (12,208)	-17.4	-13.5	1.0 (0.4)
의정부	64,861	62,585	51,133 (50,956)	52,415 (52,122)	-19.2	-16.2	2.5 (2.3)
대구	100,419	93,831	77,778 (75,571)	79,202 (76,677)	-21.1	-15.6	1.8 (1.5)
부산	77,120	75,486	61,929 (61,308)	62,753 (62,071)	-18.6	-16.9	1.3 (1.2)
청주	34,897	34,443	29,695 (28,350)	29,968 (28,676)	-14.1	-13.0	0.9 (1.1)
마산	28,903	27,769	22,846 (22,642)	22,449 (22,245)	-22.3	-19.2	-1.7 (-1.8)
안동	10,104	9,718	8,888 (8,138)	9,282 (8,518)	-8.1	-4.5	4.4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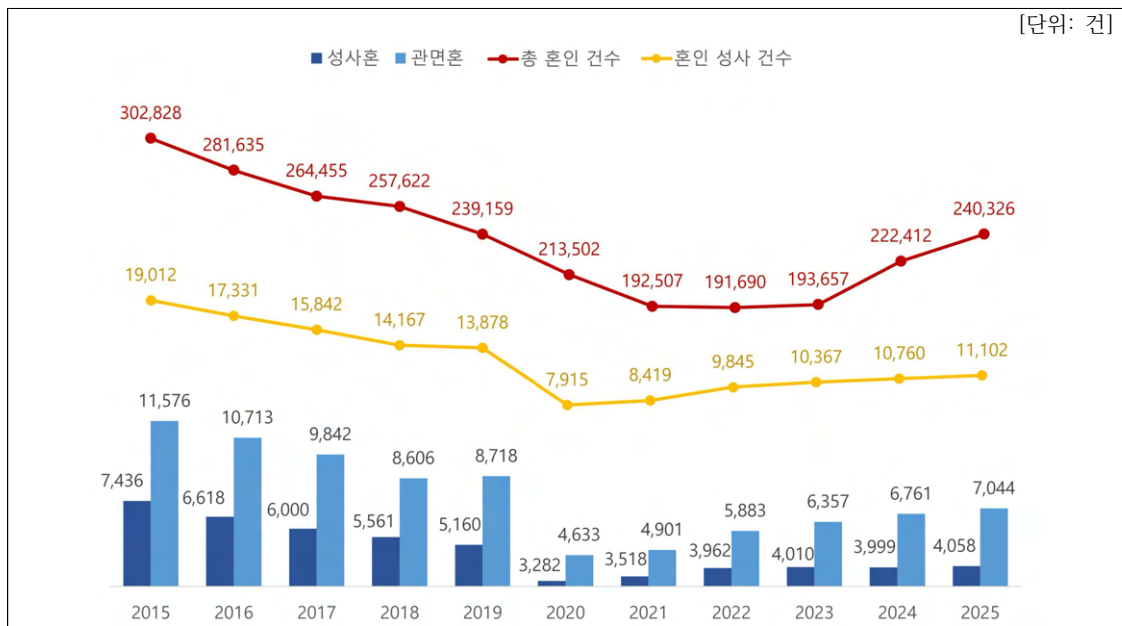
광주	61,762	58,951	47,319 (46,788)	47,797 (46,993)	-22.6	-18.9	1.0 (0.4)
전주	40,135	38,390	30,970 (30,271)	31,725 (30,761)	-21.0	-17.4	2.4 (1.6)
제주	14,456	14,280	12,925 (12,785)	16,773 (16,595)	16.0	17.5	29.8 (29.8)
군종	14,747	10,076	8,107 (-)	8,973 (-)	-39.2	-10.9	10.7
수도회			7,292 (-)	12,012 (-)			
수도회 제외 합계	1,171,751	1,080,687	895,661 (865,771)	916,183 (886,459)	-21.8	-15.2	2.3 (2.4)
수도회 포함 합계			902,953	928,195			2.8

※ 2024년부터 본당 외 다른 곳(성지, 병원 원목실, 사회 복지 시설, 사회 사목 시설 등)에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포함하였고 수도권에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수를 파악하고자 '수도회' 항목을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수도자를 비롯하여 수도원에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 전년도와 같은 조건인 '본당'에서 주일 미사에 참여한 신자 수와 그에 따른 증감률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 3) 혼인성사

- ▶ 교회 혼인 건수는 총 11,102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
- ▶ 한국 사회 총 혼인 건수는 240,326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
- ▶ 총 혼인 건수 대비 교회혼의 비율은 4.6%로 2015년 대비 1.7%p 감소, 2019년 대비 1.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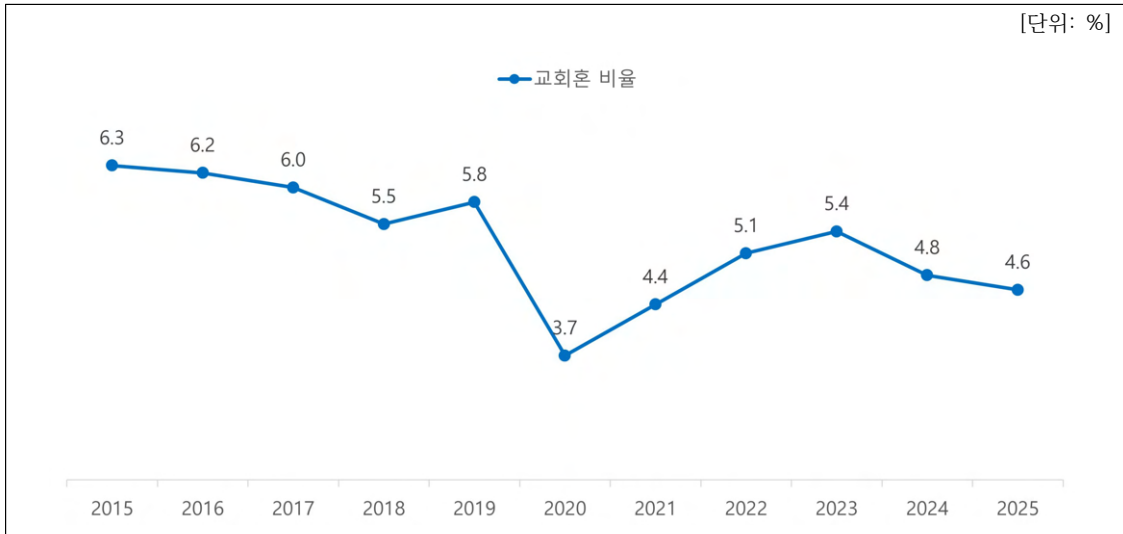
[그림 29] 혼인 건수(2015-2025년)

- 2025년 한국 천주교회의 혼인 건수는 총 11,102건(성사혼 4,058건, 관면혼 7,044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다. 교회 혼인에서 성사혼과 관면혼의 비율은 36.6% 대 63.4%로 2024년(37.2% 대 62.8%)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교회 내 혼인 건수의 감소 추세 속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교회 혼인 건수는 2019년보다 43.0%가 감소하였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교회 혼인성사는 2019년의 80.0%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5년 총 혼인 건수 증가율(8.1%)에 비하여 혼인성사 건수의 증가율(3.2%)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총 혼인 건수 대비 교회혼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에 급격히 낮아진 교회혼 비율은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비율로 회복하는 듯이 보였으나, 2024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5년에 4.6%(전년 대비 -0.2%p)를 나타냈다.

[표 33] 혼인 건수(2015-2025년)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사혼	7,436	6,618	6,000	5,561	5,160	3,282
관면혼	11,576	10,713	9,842	8,606	8,718	4,633
합계	19,012	17,331	15,842	14,167	13,878	7,915
증감률	-3.9	-8.8	-8.6	-10.6	-2.0	-43.0
총 혼인 건수	302,828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증감률	-0.9	-7.0	-6.1	-2.6	-7.2	-10.7
교회혼 비율	6.3	6.2	6.0	5.5	5.8	3.7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년 대비 증감률
성사혼	3,518	3,962	4,010	3,999	4,058	1.5
관면혼	4,901	5,883	6,357	6,761	7,044	4.2
합계	8,419	9,845	10,367	10,760	11,102	3.2
증감률	6.4	16.9	5.3	3.8	3.2	-
총 혼인 건수	192,507	191,690	193,657	222,412	240,326	8.1
증감률	-9.8	-0.4	1.0	14.8	8.1	-
교회혼 비율	4.4	5.1	5.4	4.8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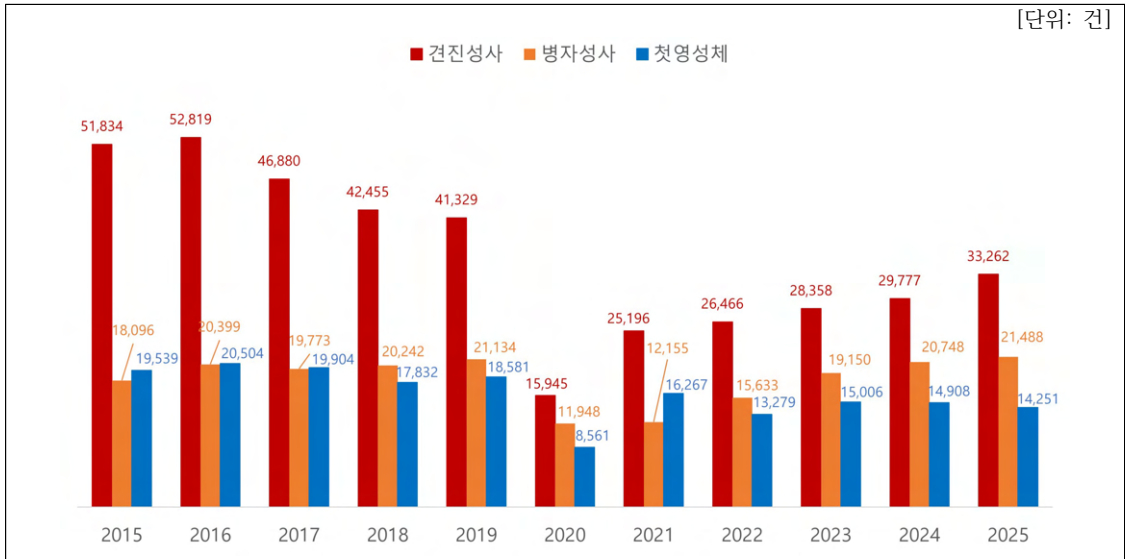


[그림 30] 총 혼인 건수 대비 교회혼 비율(2015-2025년)

#### 4) 그 외 성사

- ▶ 전년 대비 성사 활동은 첫영성체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
- ▶ 첫영성체는 전년 대비 4.4% 감소, 2019년 대비 23.3% 감소
- ▶ 견진성사, 영성체, 고해성사 참여는 증가 추세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 병자성사 참여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성사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견진성사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병자성사는 3.6%, 영성체 1.1%, 고해성사는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견진성사 80.5%, 첫영성체 76.7%, 영성체 82.8%, 고해성사 83.2%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자성사는 2019년보다 1.7% 증가하였다.
- 성사 생활이 재개되면서 2021년 성사 건수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견진성사는 2022년 이후로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다. 병자성사, 영성체, 고해성사는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병자성사 -4.7%p, 영성체 -11.1%p, 고해성사 -5.6%p). 첫영성체 건수 역시 2021년에 전년 대비 90.0%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18.4% 감소하였고 2025년에도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그 외의 성사 건수(2015-2025년)

[표 34] 성사별 참여 건수(2015-2025년)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견진성사	51,834	52,819	46,880	42,455	41,329	15,945
증감률	-0.9	1.9	-11.2	-9.4	-2.7	-61.4
병자성사	18,096	20,399	19,773	20,242	21,134	11,948
증감률	2.0	12.7	-3.1	2.4	4.4	-43.5
첫영성체	19,539	20,504	19,904	17,832	18,581	8,561
증감률	-1.8	4.9	-2.9	-10.4	4.2	-53.9
영성체	90,432,615	90,764,224	88,185,663	92,613,566	88,116,793	37,643,389
증감률	-3.1	0.4	-2.8	5.0	-4.9	-57.3
고해성사	4,283,662	4,483,072	4,462,566	3,789,949	3,804,796	1,718,523
증감률	-6.0	4.7	-0.5	-15.1	0.4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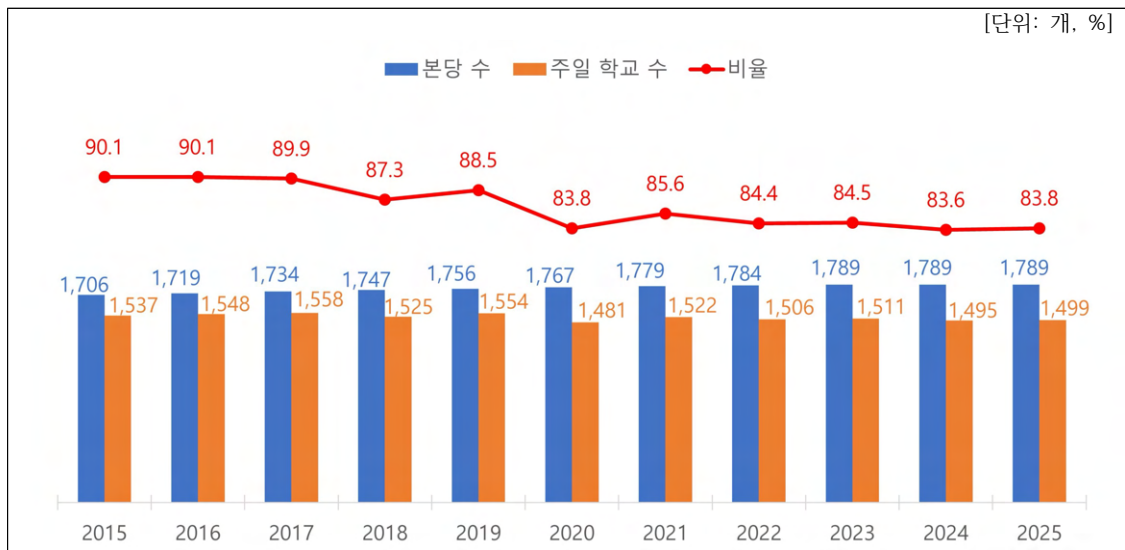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견진성사	25,196	26,466	28,358	29,777	33,262
증감률	58.0	5.0	7.1	5.0	11.7
병자성사	12,155	15,633	19,150	20,748	21,488
증감률	1.7	28.6	22.5	8.3	3.6
첫영성체	16,267	13,279	15,006	14,908	14,251
증감률	90.0	-18.4	13	-0.7	-4.4
영성체	43,258,655	60,458,536	64,352,721	72,188,748	73,004,128
증감률	14.9	39.8	6.4	12.2	1.1
고해성사	2,005,431	2,471,291	2,782,792	3,048,454	3,165,820
증감률	16.7	23.2	12.6	9.5	3.9

## 6. 주일 학교

- ▶ 전국 1,789개 본당 중 83.8%(1,499개)가 주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2% 증가, 2019년 대비 3.5% 감소
- ▶ 전년 대비 주일 학교 대상자 대비 학생 비율은 초등부 2.1%p, 중등부 1.5%p, 고등부 0.9%p 증가함

□ 전국 1,789개 본당 가운데 83.8%인 1,499개 본당에서 주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0.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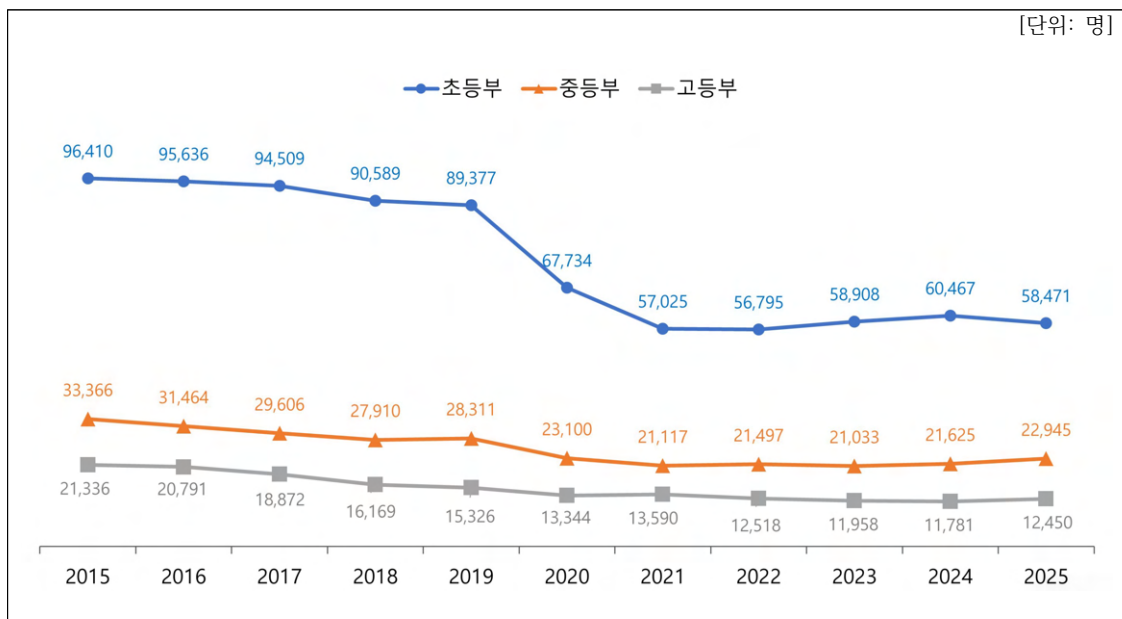
[그림 32] 본당 및 주일 학교 수(2015-2025년)

□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수는 2015년 96,410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58,471명으로 39.4% 감소하였다. 중등부 주일 학교 학생 수는 2015년 33,366명에서 2025년 22,945명으로 31.2% 감소하였으며, 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수는 2015년 21,336명에서 2025년 12,450명으로 41.6% 감소하였다.

[표 35] 주일 학교 학생 수(2015-2025년)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B-A)
초등부	학생 수	96,410	95,636	94,509	90,589	89,377	67,734	57,025	56,495	58,908	60,467	58,471	-37,939
	증감률	-2.0	-0.8	-1.2	-4.1	-1.3	-24.2	-15.8	-0.9	4.3	2.6	-3.3	-39.4
	대상 비율	61.9	62.0	62.3	58.6	58.5	46.8	41.5	49.3	49.9	53.8	55.9	-6.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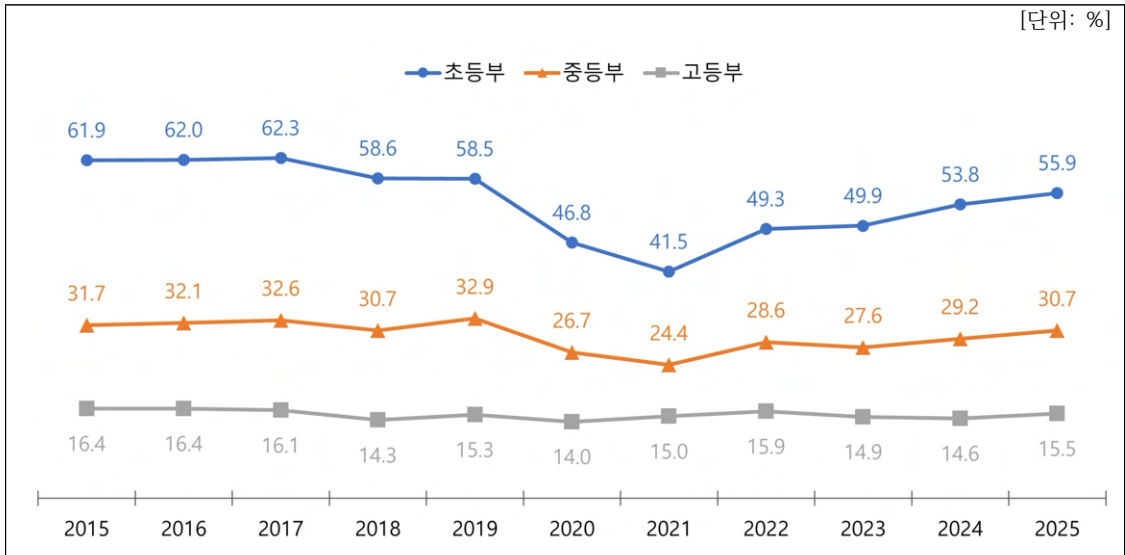
중등부	학생 수	33,366	31,464	29,606	27,910	28,311	23,100	21,117	21,497	21,033	21,625	22,945	-10,421
	증감률	-6.1	-5.7	-5.9	-5.7	1.4	-18.4	-8.6	1.8	-2.2	2.8	6.1	-31.2
	대상 비율	31.7	32.1	32.6	30.7	32.9	26.7	24.4	28.6	27.6	29.2	30.7	-1.0p
고등부	학생 수	21,336	20,791	18,872	16,169	15,326	13,344	13,590	12,518	11,958	11,781	12,450	-8,886
	증감률	-4.9	-2.6	-9.2	-14.3	-5.2	-12.9	1.8	-7.9	-4.5	-1.5	5.7	-41.6
	대상 비율	16.4	16.4	16.1	14.3	15.3	14.0	15.0	15.9	14.9	14.6	15.5	-0.9p



[그림 33] 주일 학교 학생 수(2015~2025년)

- 2025년 주일 학교 대상자 가운데 초등부 등록 비율은 2024년 대비 2.1%p가 증가한 55.9%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46.8%(전년 대비 -11.7%p)로 떨어진 후 2021년 41.5%(전년 대비 -5.3%p)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58.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 2025년 주일 학교 대상자 가운데 중등부 등록 비율은 2024년 대비 1.5%p 증가한 30.7%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26.7%(전년 대비 -6.2%p)로 떨어진 후 2021년 24.4%(전년 대비 -2.3%p)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 28.6%(전년 대비 4.2%p)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2024년과 2025년에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2025년 주일 학교 대상자 가운데 고등부 등록 비율은 2024년 대비 0.9%p 증가한 15.5%로 나타났다. 고등부 주일 학교 학생 비율의 증감은 코로나19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주일 학교 대상자 대비 학생 비율(2015-2025년)

## 7. 신앙 교육

- ▶ 전년 대비 성령 쇄신 운동, 꾸르실료, 성서 사도직은 이수자 수 증가, 성령 쇄신 운동은 가장 높은 증가율(202.5%)을 나타냄
- ▶ 전년 대비 신앙 강좌, 피정, M.E., 혼인 강좌는 이수자 수가 감소, 신앙 강좌는 -50.1%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성령 쇄신 운동을 제외한 모든 신앙 교육 이수자 수가 감소함. 그 중에서도 신앙 강좌 이수자 수가 가장 낮은 회복률(36.3%)을 보임

- 신앙 교육 이수자 수는 전년 대비 성령 쇄신 운동(202.5%), 꾸르실료(17.0%), 성서 사도직(6.8%)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신앙 강좌(-50.1%), 피정(-4.6%), M.E.(-3.7%), 혼인 강좌(-3.3%)는 이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신앙 교육 이수자 수를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니 성령 쇄신 운동을 제외하고 모든 신앙 교육 부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령 쇄신 운동 이수자 수는 2019년 대비 80.9% 증가하였으나, 신앙 강좌 이수자 수는 2019년 대비 63.7% 감소하였고, 성서 사도직(-45.1%), 피정(-39.7%), 혼인 강좌(-35.1%), M.E.(-34.9%) 순으로 높은 감소율이 나타났다.

[표 36] 신앙 교육 이수자 수 및 증감률(2019-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B)	증감(B-A)
꾸르실료	5,798	2,218	1,183	3,747	4,742	4,793	5,609	-189
		-61.7	-46.7	216.7	26.6	1.1	17.0	-3.3
성령 쇄신 운동	9,563	218	312	2,856	5,119	5,718	17,295	7,732
		-97.7	43.1	815.4	79.2	11.7	202.5	80.9
성서 사도직	192,864	26,508	39,388	80,292	74,312	99,099	105,862	-87,002
		-86.3	48.6	103.8	-7.4	33.4	6.8	-45.1
신앙 강좌	355,212	38,960	86,651	403,929	248,418	257,964	128,819	-226,393
		-89.0	122.4	366.2	-38.5	3.8	-50.1	-63.7
피정	256,210	18,054	23,631	178,444	139,777	162,092	154,571	-101,639
		-93.0	30.9	655.1	-21.7	16.0	-4.6	-39.7
혼인 강좌	12,954	6,084	7,268	8,008	8,440	8,671	8,407	-4,547
		-53.0	19.5	10.2	5.4	2.7	-3.0	-35.1
M.E.	3,210	1,164	591	1,540	2,095	2,171	2,090	-1,120
		-63.7	-49.2	160.6	36.0	3.6	-3.7	-34.9
기타	421,195	75,548	137,109	750,660	419,142	433,460	420,885	-310
		-82.1	81.5	447.5	-44.2	3.4	-2.9	-0.1

※ 기타 항목에는 교회 기관이 주최한 강연회, 연수회, 세미나, 연구발표회, 심포지엄, 특강 등 당일 교육이 포함된다.

## 8. 사회 사업

- ▶ 사회 사업 수는 전년 대비 31개 감소하여 2024년 감소율(-1.2%)보다 높은 감소율(-2.6%)을 나타냄
- ▶ 전년 대비 장애인 복지 사업 3개, 의료 복지 사업 1개 증가
- ▶ 전년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 6개, 노숙인(부랑인) 복지 사업 6개, 여성 복지 사업 4개, 지역 복지 사업 3개, 한센병 환우 복지 사업 1개, 상담 분야 사업 1개 감소

- 2025년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 복지 사업 수는 2024년보다 13개 감소한 1,161개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과 노숙인(부랑인) 복지 사업 수는 전년 대비 각 6개 감소하였으며, 여성 복지(-5개), 지역 복지(-3개), 한센병 환우 복지(-1개), 상담 분야(-1개) 사업 수가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 수가 가장 많이 감소(-71개)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사업 제외).
- 전년 대비 장애인 복지 사업 수는 3개, 의료 복지 사업 수는 1개 증가하였고, 노인 복지, 결핵 환우 복지, 교정 복지는 동일하다.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한센병 환우 복지와 의료 복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사업 분야에서 감소하여 총 190개 사업이 감소하였다.

[표 37] 사회 사업 수(2019-2025년)

[단위: 개]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B)	증감 (B-A)
지역 복지	107	97	97	96	97	97	94	-13
아동·청소년 복지	315	286	252	267	267	250	244	-71
여성 복지	77	71	64	64	63	66	61	-16
노인 복지	273	267	254	252	236	227	227	-46
장애인 복지	341	345	349	343	340	336	339	-2
노숙인(부랑인) 복지	50	49	40	39	39	40	34	-16
결핵 환우 복지	2	2	1	1	1	1	1	-1
한센병 환우 복지	17	16	16	16	20	20	19	2
의료 복지	45	26	38	35	41	44	45	0
상담 분야	12	10	12	9	7	8	7	-5
교정 복지	8	10	4	4	7	7	7	-1
기타	104	118	107	100	89	96	83	-21
합계	1,351	1,297	1,234	1,226	1,207	1,192	1,161	-190

## 9. 해외 파견

- ▶ 2025년 현재 교포 사목을 위해 파견된 신부는 260명(교구 신부 152명), 수사 9명, 수녀 149명임
- ▶ 해외 선교를 위해 파견된 신부는 248명(교구 신부 113명), 수사 42명, 수녀 589명임
- ▶ 2015년 대비 해외 선교 신부 7.9% 증가, 교구 신부 11.1% 감소
- ▶ 2015년 대비 해외 선교 수사와 수녀는 각각 10.6%, 13.4% 감소

- 2025년 교포 사목을 위해 파견된 신부의 수는 260명이고 이 가운데 교구 소속 신부 수는 152명이다. 수사는 9명, 수녀는 1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전인 2019년보다 모두 감소한 수치이다.  
교포 사목 신부의 수는 2024년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수사는 2022년에 파견하지 않았다가 2023년에 4명,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9명을 나타냈다. 수녀는 전년보다 파견자 수가 2명 감소하였다.

[표 38] 교포 사목 파견 수(2015년, 2019-2025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9(A)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B)	증감 (B-A)	2019년 대비 증감률
신부 (교구 신부)	241 (171)	268 (165)	248 (168)	248 (152)	251 (160)	251 (159)	258 (156)	260 (152)	-8 (-13)	-3.0 (-7.9)
수사	0	2	1	1	-	4	9	9	7	350.0
수녀	124	173	121	147	135	141	151	149	-24	-13.9

- 2025년 해외 선교를 위해 파견된 신부의 수는 248명이고 이 가운데 교구 소속 신부는 113명이다. 수사는 42명, 수녀는 589명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교 신부의 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명 감소하였고, 교구 신부 파견 수는 10명 감소하였다. 또한 수사와 수녀의 파견 수 역시 2019년보다 감소하였다.
- 해외 선교 신부의 수는 2019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파견 수사의 수는 2019년 이후로 2023년에 가장 많이 늘어났으나 2024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수가 파견되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명 증가하였다.
- 해외 선교 수녀의 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4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 다시 100명 감소하여 589명으로 나타났다.

[표 39] 해외 선교 파견 수(2015년, 2019-2025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9(A)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B)	증감 (B-A)	증감률
신부 (교구 신부)	225 (99)	251 (123)	245 (121)	237 (115)	244 (114)	260 (112)	254 (114)	248 (113)	-3 (-10)	-1.2 (-8.1)
수사	47	57	57	57	55	71	40	42	-5	-26.3
수녀	680	804	835	815	700	657	689	589	-215	-26.7

- 해외에 파견된 신부 수를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교포 사목의 경우 7.9% 증가하였고(교구 신부는 11.1% 감소), 해외 선교의 경우는 10.2% 증가하였다(교구 신부는 14.1% 증가).

# 사목적 시사점

#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에 나타난 사목적 시사점

## 1. 신자 현황

2025년 현재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6백만 명을 넘어서 총인구의 11.4%에 해당한다. 신자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뒤 잠시 상승 국면을 보였으나 다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신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신자의 비율은 56.8%대 43.2%로 여성 신자가 13.6%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여성과 남성 신자 비율은 6대 4를 넘어선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 이하 신자 수는 2019년보다 49.3%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고, 반면에 65-69세 신자 수는 53.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범위를 넓혀 24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비교해 보아도 전자는 감소하고 후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3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미 2019년에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8.9%에 달했다. 고령 신자 중심의 인구 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종교구를 제외하고 2021년부터 모든 교구에서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0%를 넘기 시작했으며, 안동, 춘천, 원주, 부산 교구 등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중심의 교구들에서 고령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구별 신자 비율은 서울대교구가 한국 교회 전체 신자의 25.4%를 차지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구들(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들이 전체 신자의 55.9%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신자 분포를 드러냈다. 전입과 전출 역시 수도권 교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5년 신자 현황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교회의 교적상 신자 수가 드디어 6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비록 교적상 신자 수와 실제 활동 신자 수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팬데믹 이후 낮은 증가율이 지속되고, 최근 교구와 본당 차원의 교적 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신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전체 신자 수 증가(+9,178명)가 군종교구의 증가(+10,996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전체 신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 신자 증가율은 0.2%로 전년(0.5%) 대비 0.3%p 하락하여 2023-2024년에 나타났던 회복 흐름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성직자와 신학생 현황

2025년 한국의 성직자(부제 제외)는 총 5,797명이다. 교구 신부는 4,772명으로 2017년까지는 2%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8년부터 1%대로, 그리고 2023년부터 1% 미만의 증가율을 나타내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제 감소의 주된 원인은 새 수품 신부 수의 감소인데, 2020년부터 100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5년 교구 소속 새 수품 신부 수는 총 70명으로 2015년 대비 42.1% 감소하였다. 새 수품 신부의 40%(28명)는 서울대교구에서 탄생했고, 교구 신학교를 갖고 있는 수원(10명), 대구(7명), 대전(6명) 교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품 사제를 배출했다. 사제 성소가 감소하면서 수품 신부가 없는 교구도 4개나 되었다(춘천, 원주, 안동, 제주 교구).

교구 신부들의 소임별 비율을 보면, 본당 사목을 하는 신부가 46.2%(2,205명), 특수 사목 23.7%(1,131명), 국내외 연학 4.2%(201명), 교포 사목 3.2%(152명), 해외 선교 2.4%(113명), 군종 2.1%(102명)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원로 사목은 13.3%(636명)를 기록했다. 본당 사목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는 50% 이하로 나타났다. 특수 사목은 10년 전과 동일하고, 교포 사목은 감소 추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해외 선교는 팬데믹 이후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난 4년 동안은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안식년 사제의 비율은 2015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원로 사목은 2021년 전체 교구 사제의 10%를 넘은 데 이어 10년 전보다 6.2%p가 증가했다.

교구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1,259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2,72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수도권 교구들에서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가 높게 나타났고,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5.0%(129명) 증가했다.

교구 신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년 전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에 약 33% 사제들이 몰려 있었는데, 2025년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거의 30%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교구 신부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전체의 19.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 교구 사제들의 전반적인 고연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제를 지망하는 신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교구와 수도회의 신학생 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09명에서 2025년 현재 854명으로 줄었다. 10년 전인 2015년보다는 42%(616명)나 줄었다. 교구와 수도회 신학생의 비율은 8대 2의 비율이 이어지고 있다. 신학교 입학생 수가 2022년 처음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6개의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신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전국 6개 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하는 평신도는 8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8배 증가해 주목할 만한 변화로 나타났다.

### 3. 수도회와 수도자 현황

2025년 한국 교회의 수도회는 총 172개이고, 11,170명의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남자 1,532명, 여자 9,638명). 남자 수도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3.3%(53명), 여자 수도자들은 5.1%(517명)가 감소했다. 2025년에 수련자는 남자 35명, 여자는 129명이다. 수련자의 경우에도 남자는 2015년에 비해 40.7%(24명) 감소했고, 여자 수도자의 경우에는 61.5%(2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자 대비 수련자의 비율은 2015년에는 남녀 모두 3%대였으나 2025년에는 남자 2.3%, 여자 1.3%로 감소하고 있다.

남자 수도자들 가운데 종신 서원자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으나 유기 서원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련자와 유기 서원자들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종신 서원자들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교황청 설립 수도회에서는 3%, 교구 설립 수도회들에서는 13.2% 증가했지만, 사도생활단에서는 14.1% 감소했다.

여자 수도회의 경우도 남자 수도회와 거의 비슷하다. 종신 서원자 수는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 서원자는 10년 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남자 수도회들의 경우처럼 외국 출신의 수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에는 종신 서원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18.8%(661명)나 감소했지만, 외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 서원자도 한국인 유기 서원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2015년 대비 77.3%(160명) 감소한 47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 유기 서원자는 2015년 대비 160.8%(82명) 증가한 133명으로 나타났다. 수련자 비율 역시 2015년 한국인과 외국인이 70.7% 대 29.3%였으나 2025년에는 16.7% 대 83.3%로 변화했다. 이런 경향은 사도생활단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수도회가 해외 선교를 확대하면서 현지 신자들의 수도회 입회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입회자 수 감소 속에서도 해외 선교를 통해 한국 수도회가 현지 복음화와 세계 교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 현황에서, 남녀 수도자 모두 기타 사도직 활동 비율이 점차 늘어나 2025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활동은 여러 활동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수도회 내부 소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남녀 수도회 모두 전교 활동을 비롯한 사도직 활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수도회 내부 소임의 비중이 80%가량 되는 '기타 활동'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역할뿐 아니라 수도회가 그동안 담당했던 사회적 역할 역시 크게 축소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성직자들의 고령화와 함께 수도자들의 고령화 현상, 그리고 팬데믹 전후 시기에 나타난 교회의 사회 복지 사업 축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징표와 복음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성령께서 수도회와 수도자들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지 특별한 식별이 필요하다.

## 4. 성사 활동

### 1) 세례성사

한국 교회의 영세자 수는 2017년 이래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장기적인 감소 추세이다.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5년 한국 교회의 영세자 수는 64,07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79.1%의 회복률을 나타낸다. 세례 유형별로는 유아 세례 18.5%, 어른 세례 75.4%, 죽을 위험 중 세례 6.1%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아 세례는 2019년 유아 세례의 66.6%에 해당하며, 어른 세례는 83.1%에 해당한다. 코로나 이후에 어른 영세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유아 세례자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출생률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부모 세대의 자유주의적 신앙 태도 역시 유아 세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회의 영세자 수 증가에는 여전히 군종교구의 역할이 크다. 군종교구에서의 세례는 14,897명으로 전체 영세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군종교구를 제외하고 2025년에 한국 교회의 평균 예비신자 수는 2019년 대비 31.3%나 감소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군종교구는 2019년 대비 예비신자 수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군종교구는 군 복무기간 단축,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 변화된 군 사목 환경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선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또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육군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군대 내 종교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군대 내 여건이 점차 안정되고, 군종교구의 적극적인 사목 활동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코로나 19 이전보다 세례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2) 주일 미사와 견진, 고해, 혼인 성사

2025년 한국 천주교회의 주일 미사 참여자는 전 신자의 15.5%(928,195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 해마다 주일 미사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5년은 2019년 대비 85.9%까지 회복되었다. 한편, 2024년부터 추가하기 시작한 본당 외의 장소에서의 주일 미사 참여자는 전체 주일 미사 참여자의 4.5%인 41,736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주일 미사 참여자의 4.1%인 31,182명이었다. 작년에 비해 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본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속지적 사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첫영성체 건수는 큰 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성사별 참여 건수를 2019년과 비교하면, 견진성사 80.5%, 첫영성체 76.7%, 고해성사 83.2%가량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전년 대비 병자성사 -4.7%p, 영성체 -11.1%p, 고해성사 -5.6%p).

2025년 교회 혼인은 총 11,102건(성사혼 4,058건, 관면혼 7,044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혼인 건수 역시 급격한 감소 상태에 있었지만, 2021년부터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19년의 80.0%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5년 한국의 혼인 건수 증가율(8.1%)에 비하여 혼인성사 건수의 증가율(3.2%)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혼인을 하고 혼인성사의 은총 아래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교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겠다(교회 헌장 11항). 시노드 「최종 문서」는 혼인성사가 가정 생활과 교회 건설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임무에 관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정이 가정 사목의 대상이며 주체라는 인식이 커져 왔다고 가르치고 있다(64항). 교회의 혼인 강좌 역시 2019년 대비 35.1%나 감소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5. 주일 학교

전국 1,789개 본당 가운데 83.8%인 1,499개 본당에 주일 학교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주일 학교 역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17%에 가까운 본당에서 주일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2025년 주일 학교 대상자 가운데 등록된 초등부 학생 비율은 55.9%로 나타났다. 이것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58.5%에 해당한다. 주일 학교 대상자 가운데 중등부 학생 비율은 30.7%, 고등부 학생 비율은 15.5%로 나타났다.

초등부 주일 학교 학생 수는 2015년 96,410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58,471명으로 10년 사이 39.4%가 감소하였다. 중등부 주일 학교 학생 수는 2015년 33,366명에서 2025년 22,945명으로 31.2% 감소하였으며, 고등부 주일 학교 학생 수는 2015년 21,336명에서 2025년 12,450명으로 41.6%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주일 학교 학생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서는 초등부 학생 수는 34.6%(30,906명) 감소, 중등부는 19%(5,366명), 고등부는 18.8%(2,876명) 감소했다.

시노드 「최종 문서」는 어린이들을 동반의 대상이며 동시에 신앙의 모델로서 교회 공동체에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마르 9,33-37; 61항). 교회가 어린이들의 기여 없이는 시노드 교회가 될 수 없다고까지 공언한다.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교적 잠재력을 갖고 있기에 교회에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주일 학교 체제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대상화해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기존의 관성적 사고방식 아래서 주일 학교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노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6. 신앙 교육

2025년 신앙 교육 이수자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성령 쇄신 운동을 제외하고 모든 신앙 교육 부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령 쇄신 운동 이수자는 2019년 대비 80.9% 증가하였으나, 신앙 강좌 이수자는 2019년 대비 63.7% 감소하였고, 성서 사도직(-45.1%), 피정(-39.7%), 혼인 강좌(-35.1%), M.E.(-34.9%), 꾸르실료(-3.3%) 순으로 높은 감소율이 나타났다.

교회의 삶에서 크나큰 단절을 경험하게 한 팬데믹 이래 한국 교회의 신앙 교육 역시 새롭게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하느님 백성의 함께 걸어감을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보편 교회의 강조와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시노드 「최종 문서」의 제5부 ‘나도 너희를 보낸다’(140-151항)는 별도 소제목 없이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 양성을 다루고 있다. 「최종 문서」가 말하는 양성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함께하는 양성으로 시노드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하게 요청되었던 것이기도 하다(143항 참조). 남녀 평신도, 축성 생활자, 수품 직무자가 양성에 함께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 상호 협력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서로 배우고 나눔으로써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과 대화, 체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신도들은 세례성사에서 비롯된 자신의 품위와 권한, 책임 의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교회 사명 안에서 능동적 주체임을 자각하며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능력과 경청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다양한 신앙 교육 과정 안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대화’와 같은 공동체적 식별 방법을 교회의 다양한 모임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식별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학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촉진자 양성 역시 필수적이다.

## 7. 사회 복지 사업

통계로 볼 때 한국 교회의 사회 복지 사업은 커다란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할 때 아동 청소년 복지(-33.0%), 노숙인 복지(-45.2%), 지역 복지(-13.8%), 여성 복지(-19.7%), 상담 분야(-61.1%)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증가한 분야는 장애인 복지, 한센병 환우 복지, 교정 복지, 의료 복지 등에 불과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한센병 환우 복지와 의료 복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사업 분야에서 감소했다(190개 사업).

한국 교회의 사회 복지 활동은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 위에서 시작되었고 산업화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성장과 함께 사회 복지 영역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교회 복지 활동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회 복지 기관이 일반 사회 복지 기관과 차이가 없는 기능적 서비스 제공에 머무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제2회기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는 “교회 내적인 활동과 사회 사목을 통합시키는 노력”(14항)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가 제시하는 ‘통합’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그리스도교 사회 복지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곧 복지 활동의 전문성과 복음적 사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복지 활동을 ‘교회 밖의 특수 활동’으로 구분하기보다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활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 복지 대상자들에게 단지 육체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단계를 넘어 복음의 가르침인 형제애와 환대를 통해 이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 신자 수 600만 시대의 과제: 시노드 교회를 위한 노력

한국 천주교회의 교적상 신자 수가 총인구의 11.4%인 6,006,832명으로 집계되어 600만 시대를 맞이했다. 한국 전쟁의 잔해가 남아 있던 1955년에 전체 인구 대비 신자 비율 1%였던(189,412명) 소수 종교로서는 비약적인 성장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교회 신자 수는 1975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인구의 2.98%)이 되었고, 2008년에 500만 명(인구의 9.9%)이 되었다. 100만이 된 지 50년 만에, 그리고 500만이 된 지 17년 만에 600만 명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주는 기쁨 뒤에는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현실이 있다. 한국 리서치 조사의 2025년 조사<sup>12)</sup>에서 천주교 신자 비율은 전 인구의 11%로 나타난 반면, 한국 갤럽의 조사<sup>13)</sup>에서는 6%에 그쳤다. 이 두 수치의 간극은 교적에 등록된 신자와 실제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자 사이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국가 기관인 국가데이터처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종교 인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적상 600만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이정표인 동시에, 교회가 직면한 과제의 출발점으로 읽혀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냉담 신자와 비활동 신자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주일 미사 참여율이 전체 신자의 15.5%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교적상 신자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실질적인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12) 한국 리서치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22번의 조사 결과(총 23,000명 응답)를 종합해 2025년 종교 인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신교 20%, 불교 16%, 천주교 11%, 기타 종교 1%이고, 인구의 51%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여론 속의 여론-2025년 종교 인식 조사: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2025.12.3. 참조).

13) 한국갤럽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의 대면 조사(총 7,647명 응답)를 통해 ‘현재 믿는 종교’에 대해 묻은 결과 개신교 18%, 불교, 16%, 천주교 6%, 기타 종교 0.1%, 종교 없음 60%로 응답했다(갤럽 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1) 종교 현황」, 2026.3.26. 참조).

멀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세례와 첫영성체 이후 성사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신자들, 팬데믹을 계기로 본당과의 연결이 끊어진 신자들을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초대할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목적 질문이다. 단순히 행사를 안내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이 왜 떠났는지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데서 회복의 길이 시작된다. 시노달리타스가 말하는 경청과 동반은 교회 안에 머무는 이들뿐 아니라 현재 교회의 문밖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청년·청소년 세대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24세 이하 신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일 학교 학생 수는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단지 인구 감소의 반영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끼거나, 신앙을 의미 있는 선택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적·영적 현실이 그 이면에 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질문하고 의심하며,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환영받는다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일 학교 운영 방식이나 청년 사목 프로그램이 과연 이 세대의 언어와 열망에 응답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고령화 또는 성소자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교회는 사명 실천의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각종 성사 지표, 성직자 수도자들의 소임별 비율, 사회 복지 기관 현황 등을 통해서도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수도자 역시 수련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인 입회자 대신 외국인 수련자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교회가 과거의 성장 모델, 곧 성직자 중심의 확장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위기인 동시에, 하느님 백성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시노드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이기도 하다. 평신도 신학 교육 이수자가 10년 사이 3.8배 증가한 것은 이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무적인 신호이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의 통계 지표가 의미하는 사항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는지 깨닫게 된다. 시노달리타스는 단지 신학적 당위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를 위한 사목적 처방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2021년부터 시작된 교구와 전국 단위의 시노드 과정을 통해 이 통계 지표의 이면에 있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성직자 중심주의와 수직적 권위주의적 문화, 영성의 결핍과 세속화, 끼리끼리의 배타적 문화, 여성·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소외, 사목 평의회와 같은 참여 기구의 형식적 운영 등이 바로 그것이다.<sup>14)</sup> 이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며 활동 방식인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가로막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를 둘러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더불어 이와 같은 교회 내적 장애물들이 교회의 사목 지표를 꾸준히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주교회의가 간행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종합 자료집」(2025)에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1회기, 아시아 대륙회의, 2회기) 참조.

2028년까지 이어질 시노드 이행 단계는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 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의 길을 걷어가는 실천적인 여정이다(「최종 문서」, 28항 참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하느님 백성의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600만 신자 시대를 맞이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에 충실히 대응하며 시노드 「최종 문서」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교구와 주교회의 차원의 시노드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시노달리타스 영성 함양과 수평적 소통 구조 확립, 평신도와 여성의 역할 확대와 주체적 양성, 참여 기구의 실질화와 투명한 의사 결정, 주변부로 나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교회, 가정·디지털 선교·생태와 평화를 위한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시노달리타스가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며, 600만 신자 시대가 교회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요청이다.